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이 정 윤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심리적 불편감과 전문적 도움 추구  
태도 및 의도의 관계  
-체면의 조절효과-

2013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심 리 학 과  
맹 진 희

심리적 불편감과 전문적 도움 추구  
태도 및 의도의 관계  
-체면의 조절효과-

이 정 윤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2년 11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심 리 학 과

맹 진 희

# 인 준 서

맹진희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심사위원\_\_\_\_\_ (인)

심사위원\_\_\_\_\_ (인)

심사위원\_\_\_\_\_ (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 논문개요

본 연구는 심리적 불편감과 전문적 도움 추구 태도와 의도의 관계에서 체면의 조절효과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서울과 경기지역에 거주하는 20대부터 60대까지의 일반 성인 307명을 대상으로 한국판 간이정신건강 척도, 체면 척도, 전문적 도움 추구 태도 척도, 전문적 도움 추구 의도 척도를 사용하여 설문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심리적 불편감과 전문적 도움 추구 태도는 유의하지 않은 상관을 나타냈으며, 반면에 심리적 불편감과 전문적 도움 추구 의도는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둘째, 전문적 도움 추구 태도는 전문적 도움 추구 의도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셋째, 체면은 전문적 도움 추구 태도와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 반면에 체면은 전문적 도움 추구 의도와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넷째, 성별, 연령, 직업 집단에 따라 체면 수준을 제외한 심리적 불편감과 전문적 도움 추구 태도, 전문적 도움 추구 의도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다섯째, 심리적 불편감과 전문적 도움 추구 태도 및 의도와의 관계에서 체면의 조절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전문적 도움 추구 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검토하는 데 있어서 한국인 고유의 문화적 특성을 반영하여 시도되었다는 점과, 체면과 전문적 도움 추구 태도 및 의도와의 관계를 밝혀 체면을 중요시여기는 한국인 내담자들에 대한 개입 방안에 시사점을 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 심리적 불편감, 체면, 전문적 도움 추구 태도, 전문적 도움 추구 의도

# 목 차

## 논문개요

###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 1
2. 연구문제 및 가설 ..... 7

### II. 이론적 배경

1. 한국인의 전문적 도움 추구 행동 ..... 8
2. 심리적 불편감과 전문적 도움 추구 행동의 관계 ..... 9
3. 체면과 전문적 도움 추구 행동의 관계 ..... 11
  - 1) 체면의 정의와 구성요소 ..... 11
  - 2) 문화에 따른 체면의 차이 ..... 16
  - 3) 체면과 전문적 도움 추구 행동의 관계 ..... 18

### I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 21
2. 측정 도구 ..... 22
  - 1) 심리적 불편감 ..... 22
  - 2) 체면 ..... 24
  - 3) 전문적 도움 추구 태도 ..... 25
  - 4) 전문적 도움 추구 의도 ..... 27
3. 자료 분석 ..... 28

#### IV. 연구결과

1. 주요 변인들의 평균과 표준편차 및 상관계수 .....	29
2. 인구통계학적 자료에 따른 연구 변인에서의 차이 .....	32
1) 성별에 따른 연구변인에서의 차이 .....	32
2) 연령에 따른 연구변인에서의 차이 .....	33
3) 직업에 따른 연구변인에서의 차이 .....	35
3. 심리적 불편감과 전문적 도움 추구 태도의 관계에서 체면의 조절효과 .....	37
4. 심리적 불편감과 전문적 도움 추구 의도의 관계에서 체면의 조절효과 .....	38

#### V. 논의

1. 결과에 대한 논의 .....	40
2. 연구의 의의 및 제한점과 제언 .....	46

참고문헌

ABSTRACT

부    록

## 표 목 차

<표 1> 연구 대상의 인구학적 특성 .....	21
<표 2> 체면 수준 척도의 문항 구성 및 Cronbach $\alpha$ 값 .....	25
<표 3> 전문적 도움 추구 태도 척도의 문항 구성 및 Cronbach $\alpha$ 값 .....	26
<표 4> 전문적 도움 추구 의도 척도의 Cronbach $\alpha$ 값 .....	27
<표 5> 연구변인 간 평균, 표준편차 및 상관계수 .....	31
<표 6> 성별에 따른 연구변인에서의 차이 검증 .....	32
<표 7> 연령에 따른 연구변인에서의 차이 검증 .....	33
<표 8> 직업에 따른 연구변인에서의 차이 검증 .....	35
<표 9> 체면수준에 따른 심리적 불편감과 전문적 도움추구태도와의 관계	37
<표 10> 체면수준에 따른 심리적 불편감과 전문적 도움추구의도와의 관계	38

# I. 서 론

## 1. 연구의 필요성

우리는 살아가면서 일생동안 크고 작은 심리적인 어려움이나 고통을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심리적인 문제는 급변하는 현대 사회 속에서 더욱더 복잡하고 심화되어 나타나고 있다. 현대 사회는 그 변화하는 속도가 매우 빠르고 개인화되어 있으며 다양한 가치관들이 공존하기 때문에, 현대인들은 여러 가지 스트레스와 가치관의 혼란 등으로 심리적인 부적응 현상을 경험하고 있다.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조사 결과 한국의 자살률이 OECD 국가 중 가장 높으며, 통계청의 자료를 보더라도 2010년 자살한 사람의 수는 2006년에 비해 50% 증가한 1만 5000명에 달한다고 한다. 대학생의 경우 심리적 독립과 발달과업을 성취하는 과정에서 어떤 대학생들은 대학시절의 혼란스러운 생활을 극복하지 못해 심한 적응상의 문제와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장영임, 1999), 대학생들의 26.8%가 정서적 증상 중 우울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은희, 2004).

이러한 인간의 심리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상담이나 심리치료가 매우 효과적이라고 경험적으로 입증되었음에도 불구하고(Wampold, 2000), 정신 건강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 40%미만만이 전문적인 도움을 추구한다고 보고하고 있다(Andrew, Issakidis & Carter, 2001). 이는 전문적인 도움 서비스의 이용이 가능한데도,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도움을 추구하지 않는 ‘서비스 갭(service gap)’ 현상(Brinson & Kottler, 1995; Kushner & Sher, 1991)을 말하는 것으로, 이러한 서비스 갭(service gap) 현상은 상담이나 심리치료가 보편화된 서구권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흔히 발생하고 있다(신연희, 안현의, 2005). 한 예로,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상담서비스 이용률은 그리 높지 않은 편인데, 박경애와 조현주(2007)의 연구

에 따르면, 4년제 대학의 86%와 전문대학의 53%는 상담관련 기관을 갖고 있어 대학생의 서비스 접근성은 다른 연령 집단에 비해 좋은 편이나, 실질적 이용률의 절대적 수치는 높지 않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불일치의 간극에는 상담서비스를 받는 행위에 대한 개인의 복잡한 태도형성과정이 관여됨을 어렵지 않게 예상해 볼 수 있다(이상민, 남숙경, 이미경, 2009).

한 개인이 자신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적인 도움을 고려하기까지는 많은 요인들의 영향을 받게 된다(유성경, 이동혁, 2000). 미국에서는 1960년대부터 잠재적 내담자들의 특성을 이해하고, 효과적인 상담기관 활동을 위해 상담을 요청하려는 결정에 큰 영향을 주는 요인들에 관하여 연구하기 시작하였다(장영임, 1999). 초기 연구들은 단순히 상담기관을 찾는 사람과 찾지 않는 사람들 간에 사회경제적 수준, 성별, 교육수준, 종교 등과 같은 인구통계학적 자료의 비교에 그쳤고, 도움추구와 관련된 개인내적인 특성들에 대해서는 다루지 못하였다(Berdie & Stein, 1966; Frank & Kirl, 1976; Hill & Derksen, 1972, 장영임, 1999, 재인용). 보다 최근에 전문적 도움 요청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들의 심리적인 요인들에 대해 다각적인 연구들이 이루어졌다. Cramer(1999)는 전문적 도움 추구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불편감(Rickwood & Braithwaite, 1994), 사회지지망(Tata & Leong, 1994), 자기 오페(Larson & Chastain, 1990)가 주요한 관련 요인임을 밝히고 있다.

한 개인이 심리적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상담과 같은 전문적인 도움을 요청할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과정은 자신에게 문제가 있음을 자각하는 것(장영임, 1999), 즉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 심리적인 불편감이 있어야 한다(Rickwood & Braithwaite, 1994). 한 개인이 자신의 증상에 대해 더 심각하게 지각하는 사람일수록 전문적 도움을 더 많이 고려하고(Robbins & Greenley, 1983; 장영임, 1999), 상담서비스를 더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Goodman, Sewell, & Jampol, 1984; Norcross & Prochaska, 1986). 일반적으로 도움 추구 의도에 대한 연구들에서는 심리적 불편감 지각

이 전문적 도움 서비스를 찾게 하는 의지와 정적으로 유의하게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Cepeda-Benito & Short, 1998; Cramer, 1999). 따라서 심리적 불편감에 대한 호소는 도움 추구 가능성을 예견하게 한다고 볼 수 있다(Cramer, 1999).

그러나 심리적 불편감이 잠재적 내담자의 전문적 도움 추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에도 불구하고, 심리적 어려움을 경험하는 모든 사람들이 전문적인 도움을 구하는 것은 아니다(Lopez, Meledez, Sauer, Berger & Wyssmann, 1998). 예를 들어 상담에 대해 저항이 높은 청소년들이나 미국 내의 소수 민족들의 경우 정서적인 스트레스가 비교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상담을 이용하는 정도는 스트레스가 낮은 비교 집단에 비해 저조하였다(Akutsu, Snowden, & Organista, 1996; 김주미, 유성경, 2002, 재인용). 이러한 결과를 통하여, 한 개인이 심리적 불편감을 느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적인 도움을 추구하는 과정 사이를 조절하는 또 다른 요인들이 있음을 예상해 볼 수 있다.

한편 전문적 도움 추구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연구들에서 한 개인의 심리적 요인 이외에도, 개인을 둘러싼 외적 요인 즉 문화가 기여하는 요인에 대한 연구들이 있어왔다. 이는 주로 서양과 동양의 전문적 도움 추구 태도와 이용 가능성에 대한 문화차를 연구한 시도들이었는데, 이러한 연구의 배경에는 자신의 심리적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에는 문화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상담과 같은 전문적 도움 추구 태도에도 이러한 문화적 차이가 나타날 것이라는 가정으로 진행되었다(유성경, 유정이, 2000).

흔히 동양인들은 심리적 문제나 어려움을 상담을 통해 해결하려는 경우가 매우 드물며, 오히려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거나 주변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다(Akutsu, Snowden & Organista, 1996). 이에 동양 문화권에서의 상담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 및 저조한 상담활용도와 관련하여 가장 많이 거론되어졌던 요인 중의 하나는 집단주의적 경향성이었다

(Kawanishi, 1992; Lin, 1981; Tata & Leong, 1994). 그러나 Yoo(1997)의 연구에 의하면, 개인주의-집단주의 성향을 보다 세분화하여 수직적 집단주의, 수평적 집단주의, 수직적 개인주의, 수평적 개인주의로 나누어 상담에 대한 태도와 의 관계를 분석하였는데, 동양과 서양의 상담에 대한 태도 차이에 영향을 주는 문화적 변인은 개인주의-집단주의 경향성 보다는 수직적-수평적 차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쟁적이고 성취 지향적이며 지위에 따른 불평등을 인정하는 특성을 가지는 수직적 개인주의 성향이 높을수록, 정신병리가 있다는 사실로 인해 생길지도 모르는 오점을 수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상담에 대해 부정적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유성경과 유정이(2000)의 연구결과와, 수직적 개인주의와 오점수용 정도가 역상관을 보이는 유성경과 이동혁(2000)의 연구결과와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화적 요인에 초점을 맞춘 연구 동향에 따라, 상담에 대한 한국인의 태도는 개인주의-집단주의 성향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고(유성경, 유정이, 2000; 유성경, 이동혁, 2000; 김주미, 유성경, 2002), 더 나아가 수직적 차원이 높게 나타나는 우리나라의 문화적 특성에 따라 사회적 낙인과 자기 낙인을 높게 지각할수록 전문적 도움을 구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게 된다는 연구(이민지, 손은정, 2007)들이 있었다. 더불어 이규태(1983)와 조공호(2003)의 연구에서 한국인의 고유한 심리적 특성 중 하나가 자기 은폐라는 것에 근거하여, 자기 은폐 성향이 높을수록 전문적 도움 추구 태도가 부정적이라는 연구 결과를 내어놓기도 하였다(김주미, 유성경, 2002; 장진이, 2001). 하지만 아직까지 한국인 고유의 문화적 특성을 반영한 태도 요인의 연구는 그다지 활발하게 이뤄지지 못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상담과 같은 전문적 도움 추구 행동과 관련하여 이미 우리 문화의 중요하고 고유한 특성이면서도, 아직 연구가 미비한 문화적 개념들을 더욱 탐색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이규태(1983)는 한국인의 심리적 특성으로 열등의식, 서열의식, 상향의식,

집단의식, 은폐의식, 금욕의식, 가족의식, 체면의식, 내향의식, 공공의식 등을 열거하였다. 체면(體面)은 한국인의 사회적 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하는 문화적 특징으로(최상진, 양병창, 1999), 한국사회의 유교적 규범과 관계적 특성이 빚어낸 특징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박기순, 1994). 물론 체면을 한국인에게만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고유의 사회-심리적 현상으로 보는 것에는 무리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면이 한국인의 일상생활에서 빈번하게 관여되는 중요한 사회 심리적 현상이라는 점에서 한국인의 문화심리 이해에 필수적(최상진, 김기범, 1998)이라 할 수 있다. 체면이란 남을 대하기에 떳떳한 도리나 얼굴이란 뜻(우리말 큰사전, 1994)으로, 체면을 지킨다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도리에 맞는 행동을 하는 것이며, 반면에 체면이 깎인다는 것은 도리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여 이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을 의미한다(최상진, 김기범, 1998).

장성숙(2004)은 ‘개인’을 강조하는 서구와는 달리 관계주의적 특성을 가진 우리나라 사회는 집단주의 문화권에 속하여 사회적 관계 속에서의 ‘역할’ 수행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때문에 한 개인이 자신의 심리적 문제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상담과 같은 전문적 도움을 구한다는 것은, 자신의 신분이나 지위에 맞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인식하거나, 자신에게 결함이 있어 사회적으로 수용 받을 수 없을 것이라 여기게 되는 것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이에 전문적인 도움을 요청하는 행위는 자신의 도리를 다하지 못한다고 여길 수 있게 하여 스스로 체면을 잃었다고 느낄 것이 예상되므로, 체면이 상담이나 심리치료와 같은 전문적인 도움을 추구하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가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안근석(2000)은 체면 수준이 높을수록 자신에 대한 스스로의 노출은 줄어들게 된다고 보고하였다. 상담과정은 자기 노출을 기본적으로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한국인의 체면의식이 전문적 도움 추구에 대하여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게 하는지, 전문상담기관의 이용 가능성을 낮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이와 같이 체면이 중요한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체면이 한국인의 상담에 대한 태도나 상담서비스 이용에 대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구체적으로 검토한 연구는 거의 전무하다고 할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심리적 불편감을 겪게 되면 전문적인 도움을 추구하고자 하는 경향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지만, 그 과정에서 체면수준이 높고 낮음에 따라 도움추구태도와 의도가 달리 나타날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심리적 불편감과 전문적인 도움 태도 및 의도의 관계에서 체면의 조절효과를 검증해보고자 한다.

또한 전문적 도움 추구 대한 태도는 전문적 도움 추구 행동을 꽤 높게 예측하는 변인으로 보고되고 있는데(Fisher & Turner, 1970; Kelly & Achter, 1995; Vogel & Wester, 2003), 태도가 실제 행동을 예측하는 데는 제한이 있으므로 의도를 태도와 더불어 종속변인으로 설정하여 전문적 도움 추구 행동에 대한 설명력을 높이고자 한다. 의도란 정해진 상황에서 일정한 행동을 수행하는 것으로 예측되어지는 특별한 외현적 반응을 하는 것이라 정의된다(Ajzen & Fishbein, 1973).

본 연구는 한 개인이 자신의 심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적인 도움을 추구하기까지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요인인 심리적 불편감과 문화적 요인인 체면을 함께 고려하기 때문에, 한국인의 전문적 도움 추구 행동에 대한 이해의 폭을 보다 넓힐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상담학계는 서구 문화적인 상담을 한국 문화에 맞게 정착시키기 위하여 주로 한국적 상담 모형 개발에 초점을 맞추어 왔는데, 본 연구와 같은 한국인의 전문적 도움 추구 행동에 대한 연구를 통해 한국인들의 특성을 보다 더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로써 서구 문화적인 상담서비스를 한국 문화에 맞게 적용하여 내담자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상담을 좀 더 활성화 내지는 보편화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라 여겨진다.

## 2. 연구문제 및 가설

앞에서 언급한 연구의 필요성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 문제 및 가설은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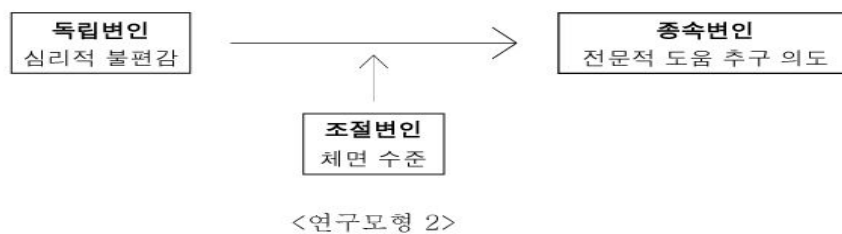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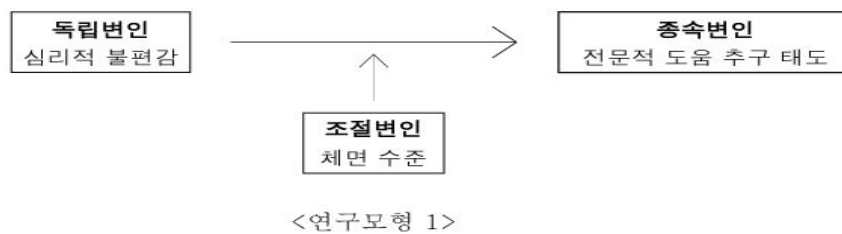
심리적 불편감과 전문적 도움 추구 태도와 의도는 서로 관계가 있는가?

가설 1-1. 심리적 불편감이 높을수록 전문적 도움 추구 태도가 긍정적일 것이다.

가설 1-2. 심리적 불편감이 높을수록 전문적 도움 추구 의도가 증가할 것이다.

### 【연구문제 2】

심리적 불편감과 전문적 도움 추구 태도와 의도의 관계는 체면 수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가?



## II. 이론적 배경

### 1. 한국인의 전문적 도움 추구 행동

상담이 우리나라에 제도적으로 도입된 것은 1960년대 이후로 현재까지 50여년이 흘렀다(윤향숙, 김순자, 장성화, 2010). 서구 문화권에선 상담이 인간의 심리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매우 유용하다고 경험적으로 입증되어 보편화 되고 있지만(Wampold, 2000), 한국인들에게는 아직까지 상담이 친숙한 개념이 아니거나 정보가 부족하여 그 이용도가 낮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인들이 이용하는 정신건강 원조체계 유형의 범위에는 가족과 친척, 친구, 동료, 선생, 종교인과 같은 비공식적 자원, 정신과나 비정신과 의료인, 비의료적 정신건강전문가와 같은 서구식의 전문가, 전통의학과 더불어 광범위하게는 무속요법, 민속신앙요법이 포함되고 있다(이선희, 2002). 한국인들은 특히 ‘심신일원론’의 질병관을 기초로 심리정신적 문제를 신체화하는 경향이 강하여 신체질환을 다루는 진료기관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김광일, 1997). 덧붙여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이 생길 때 흔히 ‘점’을 보러가는 무속요법과 같은 행동이 쉽게 관찰될 수 있어, 한국인들은 상담 이외에 도움기관에 의존도가 높다고 여겨진다.

또한 한국인의 경우, 한 개인이 정신건강서비스 이용에 대한 높은 동기를 가지고 있어도 사회적 낙인으로 인해 정신건강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하며(Yoo, 1997), 일부에서는 부정적인 시각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Ying & Miller, 1992). 이민지와 손은정(2007)은 한국인은 심리적 장애에서 보여주는 아주 심각한 문제행동뿐만 아니라 상담이나 심리치료를 받는다는 것만으로도 다른 사람들에게 부정적으로 지각되거나, 자신에게 열등감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며, 이것은 상담 및 심리치료와 같은 전문적 도움을 구하지 못하도록 방해 한다고 보고하였다.

이처럼 한국인들은 심리적인 어려움이 생겼을 때 상담과 같은 정신건강서비스보다 다른 도움기관에 의존도가 크거나, 서비스 이용에 대한 사회적 시선의 우려로 인해 그 활용도가 높지 못한 것으로 여겨진다.

## 2. 심리적 불편감과 전문적 도움 추구 행동의 관계

일반적으로 한 개인이 도움을 구하기까지의 과정은 대략 세 가지 단계로 정의될 수 있다(Gross & McMullen, 1982; 박지선, 1994, 재인용). 먼저, 도움추구과정의 첫 단계인 문제인식단계로 사람들은 과거의 경험이나 지식을 통해 형성된 정상성의 개념에 근거하여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자각한다. 이 과정에서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자각하게 되면 도움추구를 결정한다. 두 번째 단계인 도움추구결정단계로 문제해결에 외부의 도움이 필요한가의 여부를 판단하고, 도움을 받겠다고 결정하면 도움을 받았을 때의 이득과 도움을 받지 않을 때의 손해를 비교한다. 도움추구의 이득과 손해를 비교한 후 도움추구를 결정하면, 마지막 전략수행단계로 주위의 다양한 자원들을 통해 실제로 도움을 획득하여 이용하게 된다.

이처럼 사람들이 문제 해결을 위해 전문적 도움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 심리적인 불편감이 있어야 한다(Rickwood & Braithwaite, 1994). 오스트리아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성별, 지지망, 정신건강 서비스에 대한 개방, 심리적 불편감의 정도가 일반적인 도움 추구하고 전문적인 도움 추구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한 연구(Rickwood & Braithwaite, 1994)에 따르면, 일반적인 도움 추구에서는 모든 것이 의미 있는 요인이었으나, 전문적인 도움 추구에서는 심리적 불편감만이 유일하게 의미 있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장영임(1999)은 대학생 311명을 대상으로 문제의 심각도, 사회적 지지 및 상담자에 대한 신뢰가 상담요청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는데, 문제

의 심각도가 높은 사람들이 문제의 심각도가 낮은 사람들보다 상담요청 가능성이 높았다고 보고하였다. 유영란과 이지연(2006)은 대학생 330명을 대상으로 성인애착과 전문적 도움 추구 의도, 심리적 불편감, 사회적 지지, 자기은폐 간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알아본 결과, 심리적 불편감이 높을수록 전문적 도움 추구의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신연희와 안현의(2005)도 대학생 394명을 대상으로 전문적 도움 추구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접근요인(참가자의 성별, 심리적 불편감, 사회적 지지망에 대한 조망)과 회피요인(자기 노출, 자기 은폐, 노출에 따른 위험과 유용성 기대)이 상담에 대한 태도와 의도를 예측함에 있어서 상대적 영향력을 탐색해보았는데, 심리적 불편감이 높을수록 상담을 받고자 하는 의도가 높아졌다고 보고하였다.

덧붙여 상담 준비도(readiness for counseling)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심리적 불편감과 전문적 도움 추구 행동의 관계를 추론해 볼 수 있다. 상담 준비도란 내담자가 상담에 참여하여 목적하는 상담성과를 얻을 수 있기 위해 필요한 지적, 정서적, 의지적 상태를 가리킨다(김인규, 2004). 상담준비도의 구성요소로 Minge(1965)는 자신의 현재 상황 및 상태에 대한 불편한 감정상태, 현재 행동 또는 자신의 지각이 부적응적이라는 인식, 자신의 지각과 행동을 바꾸려는 의지와 능력, 전문가가 자신의 어려움을 해결해줄 수 있으리라는 신념 등을 들었다. 이들 중 가장 분명하고 중요한 것은 내담자의 불편한 현재 상태 또는 현재 상태의 불만족감이며, 자신의 문제에 대한 인식과 주관적 고통의 심화는 내담자로 하여금 상담을 신청하게 한다는 것이다(김인규, 2004).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 개인이 자신의 심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적인 도움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가장 선행되어야 하고, 일차적인 요인인 심리적 불편감을 독립변인으로 설정하여 전문적 도움 추구 태도 및 의도와와의 관계를 알아보려고 하였다.

### 3. 체면과 전문적 도움 추구 행동의 관계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체면이 말이 아니다”, “체면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내 체면에..” 라는 말을 흔히 들을 수 있다. 우리나라의 “양반은 물에 빠져도 개헤엄은 안친다”, “냉수 먹고 이빨 쭈신다”라는 속담이 있는 것처럼, 한국인의 의식구조 특성이나 사회적 성격의 하나로 분류되는(윤태립1986; 이규태, 1977; 최재석, 1989) 체면은, 상황과 관계에 따라 자기 또는 사실과 다르게 행동함으로써 자신이나 상대의 지위나 외적명분을 높여주는 행동의 과정 또는 현상을 지칭한다고 말할 수 있다(최상진, 유승엽, 1992). 한국인의 일상생활에서 빈번하게 관여되는 체면현상을 보다 심도 있게 개념화하여, 한국인의 체면이 타문화권의 개념과 어떻게 다르며, 체면 상실은 한국인들에게 어떠한 의미인지, 체면이 전문적 도움 추구 행동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한다.

#### 1) 체면의 정의와 구성요소

체면은 몸을 뜻하는 체(體)와 얼굴을 뜻하는 면(面)의 합성어이다. 체면이란 그 한자어 자체가 뜻하는 것처럼 ‘남을 대하기에 떳떳한 도리나 얼굴’로 정의된다(우리말 큰사전, 1994). 최상진과 김기범(1998)은 ‘얼굴’은 내적 자기 즉, 내적 품성의 외적 표현인 동시에 외적 상징이고, 체면을 지킨다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도리에 맞는 행동을 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인간으로서의 도리는 양심과 관계되어 도리에 맞는 행동을 했을 때 떳떳한 감정을 갖게 된다. 이러한 떳떳한 마음 또는 떳떳하지 못해 느끼는 마음 즉, 부끄러움은 예의염치의 도덕적 판단에서 비롯된다. 유교에서는 예의와 도덕의 기본 심성을 염치의 발달에 두고 있다(최봉영, 1997).

한 개인이 도리에 어긋나는 행동을 했을 때 부끄러움을 느낀다고 하였는

데, 이러한 부끄러움에는 자신이 자신을 보고 느끼는 자괴성 부끄러움과, 남에게 비취진 자신을 보고 느끼는 창피성 부끄러움이 있다. 일반적으로 창피성 부끄러움은 자괴성 부끄러움을 수반하는 경우가 많으며, 아울러, 창피성 부끄러움은 부정적 자기에 대한 자기 인식의 차원을 넘어 사회적 도덕성 및 대인관계에 있어서의 추가적 부담을 안겨줌으로서, 창피성 부끄러움은 자괴성 부끄러움보다 그 강도와 선명도 및 경험빈도 면에서 더 높은 경향을 띠고 한다(최상진, 양병창, 1999). 이 두 부끄러움의 현상을 ‘자기’와 연계시켜 보면, 자괴성 부끄러움은 자신의 내적 품성을 행동이라는 거울을 통해 반성적으로 확인한다는 점에서 반성적 내적 자기라고 볼 수 있으며, 창피성 부끄러움은 상대의 반응을 통해 자신의 내적 품성을 확인한다는 점에서 반사적 내적 자기라고 볼 수 있다(최상진, 김기범, 2000).

한편 체면을 준거차원에 따라 도덕성 체면과 능력 체면으로 나뉘볼 수 있다(최상진, 김기범, 1998). 체면이란 앞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남을 대하기에 떳떳한 도리나 얼굴’을 말한다. 도리에 맞는 행동을 하면 떳떳한 감정을 느껴 체면이 세워지고, 반대로 도리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면 부끄러움을 느끼고 체면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여기서 떳떳함과 부끄러움을 결정하는 준거는 양심인데, 양심이란 인간으로서의 도리와 도덕적 선악과 관계된 마음의 틀을 뜻한다. 소위 양심과 관련된 인간으로서의 도리는 사람 됨됨이라는 도덕적 인격과 연계되어 도덕성 인격 체면으로 귀결된다. 유교문화권인 한국에서 좋은 사람은 도덕적인 인격을 갖춘 사람을 뜻하며, 유교에서 도덕적인 인격을 갖춘 사람은 예의염치를 아는 사람이라 하였다. 예의염치의 도덕적 판단이 기준이 되어 떳떳한 마음 또는 떳떳하지 못한 마음(부끄러움) 즉 체면이 세워지고 또는 잃는 것이 생기는 것이다.

또한 예의염치 중심의 도덕성과 양심성을 준거로 한 도덕성 체면과 함께, 능력이나 신분-지위 또한 부끄러움 경험의 준거적 원천이 될 수 있다(최상진, 김기범, 1998), 일상생활의 예를 들어보면, 입학시험에 떨어진 당사자나

당사자의 부모가 남부끄럽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을 피하는 경우, 높거나 명분 있는 지위에 있지 못하거나 훌륭한 직장에 다니지 못하는 사람들이 친구 만나기가 창피하다는 이유로 동창회에 나가지 않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된다고 한다. 도리에 맞는 행위 즉 도덕적 판단이 체면의 준거 원천이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능력상의 우월성이 나타나는 행위를 했을 때 우리는 체면이 섰다고 말하며, 자신의 무능함이 드러났을 때 체면이 손상되었다고 말한다는 것이다. 최상진과 김기범은(1998)은 도덕성 체면과 능력체면을 일상적 언어로 ‘나쁜 놈(못된 놈) 체면’, ‘좋은 놈(괜찮은 놈) 체면’, ‘못난 놈 체면’, ‘잘난 놈 체면’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였다.

나아가 이러한 두 가지 차원의 체면을 체면욕구와 연관 지을 수 있다. 체면욕구는 도덕적 인격상에서 못되지 않은 또는 좋은 사람이 되려는 욕구와, 능력 면에서는 못나지 않은 사람 또는 잘난 사람이 되려는 욕구로 해석해 볼 수 있다(최상진, 김기범, 1998). 이는 다시 말해, 좋은 사람, 잘난 사람이라는 자기 인식을 통해 떳떳함과 우쭐함을 느끼고, 못된 사람과 못난 사람이라는 자기 인식을 통해 부끄러움을 느낀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를 통해 체면욕구는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고 떳떳한 마음과 자부심을 가지려는 심리 경험적 욕구로 수렴해 볼 수 있다. 부끄러움, 떳떳함, 자부심과 같은 심리적 경험은 자기 반성적 자기평가 보다는 타인 반사적 자기평가를 통해 체험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남부끄럽다’라는 말처럼 우리가 보통 느끼는 부끄러움은 스스로 느끼는 ‘자기 부끄러움’보다는 남을 통해 또는 남 앞에서 느끼는 남부끄러움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최상진, 김기범(1998)은 체면은 자기 자신의 도덕성과 능력을 성숙·고양시키려는 자기완성욕구와, 동시에 남으로부터의 승인과 인정을 받으려는 사회적 성취욕구라는 두 가지 측면의 욕구에 기초하고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한국인에게 체면이 발달되었다는 말은 체면의 기저욕구 면에서 자기완성적 욕구보다는 남으로부터의 승인과 인정의 사회적 성취욕구가 강한데서

체면의식이 발달되었음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체면의 '타인 의식적'인 측면은 타인의 평가를 의식한 체면 유지를 위해 겉치레에 치중하는 현시주의로 나타나는 호화혼수나 사치성 소비 혹은 과시 행위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설명되기도 하였다(나은영, 1994). 한국인의 체면욕구가 사회성취지향적이라고 하여 최상진과 유승엽(1992)은 이러한 체면을 지위-신분 체면이라 명명한 바 있는데, 이는 한국인에게 지위와 신분이 높다는 것이 도덕성 인격과 능력이 우월함을 함축하는 지위·신분-인격·능력 균형관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체면 욕구를 자기완성욕구와 사회적 성취욕구로 나눠보았는데, 이 두 가지 욕구는 도덕-인격적 자기와 능력자기의 구성과 자기개념 형성에 핵심적 요인이 된다(최상진, 김기범, 2000). 체면이 개인에게 일종의 자기반성체계 또는 자기제어체제로 작동하기 때문에 체면의 발달은 곧 인격의 발달과 사회성의 발달에 직결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자신의 내적 품성이나 능력과는 관계없이 체면이 지위나 신분의 획득과 현시에 집착되거나 인격과 능력의 과장이나 과도하게 치레성 중심적일 때, 체면과 체면심리는 부정적 방향의 인성형성과 인격의 발달에 장애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우리 사회에는 체면의 본질적 의미보다는 겉으로 드러난 신분과 지위를 과시하거나 현시하려는 경향이 두드러지며, 이는 자신의 신분 및 지위를 현시하기 위한 체면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최상진, 유승엽, 1992).

최상진과 양병창(1999)은 자기완성욕구와 사회적 성취욕구를 보다 더 세분화하기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다섯 가지의 하위 요인을 추출하였다. 자존심방어욕구, 신분-지위부착욕구, 인격품위유지욕구, 무리귀속욕구, 우월감추구욕구가 그것이다.

첫째, 자존심방어욕구는 개인의 가장 핵심적인 자의식을 포함하는 자기애적인 부분으로, 대외적으로 자신을 지켜 주는 자기 정체성의 부분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한 개인의 자긍심은 자기 자신의 평가와 타인의 평가 모두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해도, 타인의 평가가 한 개인의 자긍심이나 이미지에 상대적으로 더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에 자신의 평가나 타인의 평가가 부정적인 방향으로 결과 되지 않도록 방어막을 구축하는 욕구라 할 수 있다.

둘째, 신분지위부착욕구는 사회적으로 인정된 지위나 신분에 대한 욕구로 사회적 성취욕구의 한 형태를 나타낸다. 신분·지위-인격·능력 합치관에 의하면, 사회적으로 인정된 신분이나 지위는 인격이 높고 능력이 탁월하다는 것을 암시한다. 때문에 사회적으로 인정된 지위나 신분이 없을 경우 이를 대신하기 위해 자신의 부와 권위를 과시하거나, 허세를 부리거나, 혹은 사치나 과소비, 중요 인사들과 ingroup관계를 시사함으로써 자신이 대단한 인물임을 내보일 수 있다.

셋째, 인격품위유지욕구는 체면의 구성요소 중 자기 완성적인 도덕성 체면을 나타낸다. 자신이나 타인에 의해서 일정 수준의 도덕적 인격을 갖추었다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도리에 맞는 행위 혹은 인격에 걸맞는 형식이나 격식을 보이게 되는데, 단순히 외면적 존엄만을 강조하거나 의례적인 예에 치중하는 등의 표현적 측면에 초점을 맞춘다면 형식주의에 빠질 수 있다.

넷째, 무리귀속욕구는 타인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타인을 배려하는 체면의 관계적 특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자신이 속해 있는 공동체의 규범을 준수하고 공동체 성원들과의 유사성을 보임으로서 무리와 동질성을 보이려는 특징을 가진다.

다섯째, 우월감추구욕구는 타인에 의해서 인정받는 우월성이나 역량이라기 보다는 스스로 인식하고 있는 역량의 부분으로, 우리나라의 지위·신분-인격·능력 합치관에 의한다면, 우월한 능력이나 높은 지위는 당사자의 인격이나 신분의 표상으로 기능을 하게 된다. 이 체면욕구가 지나치게 발현되면, 권위주의나 독단으로 발전할 소지가 있다.

## 2) 문화에 따른 체면의 차이

체면은 한국인에게만 나타나는 고유한 문화적 현상은 아니며(최상진, 김기범, 2000), 한국을 비롯한 일본과 중국 등지의 문화권에서 자주 찾아볼 수 있는 있는 보편적인 심리-사회적 행동 특성이라는 점은 여러 학자들에 의해서 강조되고 있다(김재은, 1987; 오세철, 1982; 윤태립, 1986; 이규태, 1977; 최상진 등, 1992, 1998; 최재석, 1976; Goffman, 1959; Ho, 1976; Sue & Morishima, 1982; Brown & Levinson, 1978). 먼저, 서구에서 이루어진 체면 연구를 살펴보면, 체면은 서구에서 연구되어 온 얼굴(face, Goffman, 1959)개념과 유사하다. Goffman(1959)에 의하면, 무대 위의 배우가 다양한 개성을 연출하듯이 사람들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얼굴을 연출한다고 한다. 그는(1967) “체면이란 상호작용 시에 사람들이 스스로를 위하여 주장하는 바람직한 사회적 가치로 구성된 이미지”라고 정의하였다. 또한 Brown과 Levinson(1987)은 체면을 “모든 구성원들이 각자 자신에 대해서 주장하는 공적인 자아 이미지”라고 정의하면서, 체면은 개인의 자율성, 권리 그리고 능력에 대한 주장과 연계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Goffman(1955, 1956)에 의하면 사람들은 자신이 주장하는 긍정적인 사회적 속성을 남들에게서 인정받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며, 이러한 노력들이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데 실패했다고 지각하게 되면 당혹감을 느끼게 되고, 얼굴이 붉어지며 말을 더듬는 행동이 나타나 그로 인해 회합의 자연스러운 진행이 어려워진다고 하였다.

최상진(2000)은 동양의 체면과 서양의 얼굴개념을 비교하면서, 서양의 얼굴은 대인관계에서 행위자가 타인의 가치나 기준에 부합되게 드러낸 행위자 자신의 인상이나 이미지이며, 이러한 사회적 얼굴은 대인관계의 대상이 누구인가에 따라 달라진다고 하여 자기중심의 것으로 보았다. 반면에 동양의 체면은 특정 사회적 또는 문화적 맥락에서 공유되는 신분이나 지위와 결부되는

사회적 속성을 갖는 것으로 보았다.

아시아권의 체면 연구를 살펴보면 Hu(1944)는 중국에는 두 가지의 체면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체면에는 ‘미엔쯔(mienz)’라는 개념과 ‘리엔(lien)’이라는 두 종류가 있으며, 미엔쯔는 “살아가는 동안 성공과 과시를 통하여 얻게 되는 명성”으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처신이나 품위, 역량(임태섭, 1995)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김주엽, 2003, 재인용). 반면에, 리엔은 “개인의 도덕적 특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이며, “이것은 개인에게 내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도덕적 기준에 합치하는 행동을 하도록 제약을 가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 뒤에, Ho(1976)는 주로 ‘미엔쯔’에 주목하여 체면이란 어떤 개인이 그가 속한 사회적 네트워크 속에서 차지하고 있는 지위에 걸맞는 행동을 하고 있는지, 또는 그의 일반적인 행동이 사회적 기준에 맞는지에 따라 유지 여부가 결정된다고 주장함으로써, 체면의 사회적 측면을 특히 강조하였다. 그는 지위에 대한 주위 사람의 기대와 체면을 연결하고 있다는 점과, 자신의 내부 집단원의 체면 손상도 자신의 체면 손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개인 중심적 서양식 체면 개념과의 구별을 시도하였다.

한편, 일본인에게 있어서도 체면은 매우 중요한데, 일본인의 체면인 ‘멘쯔(mentz)’는 자기 방어적인 특성이 강하며, 수치가 체면 준거의 중요한 원천이 된다고 한다(Lebra, 1976). 수치감은 도덕적 인격성의 하자보다는 집단적 명분이나 의리를 저버리는 행동에 더욱 민감하게 나타나며, 사회적 관계에서의 체면은 본심인 ‘혼네’보다는 일본인의 사회적 교류방식인 ‘다테마에’에 의존하는 경향이 많다는 점에서 의례적 측면의 체면성이 높다. 따라서 일본인의 체면은 개인수준의 인격체면의 측면보다는 집단수준의 명분체면성이 높다는 점에서 한국이나 중국과도 다르며 서양과도 다르다고 볼 수 있다(최상진, 김기범, 2000).

결론적으로, Bloodworth(1980)는 동양인에게 체면은 옷과 같은 것이라 주

장하면서, 동양인에는 자신의 진실된 자아를 체면이라는 지위에 걸맞는 옷으로 감싸는 것이 당연한 일이며, 서양인처럼 진실된 자아를 그대로 내비치는 것이 오히려 대중 앞에 알몸으로 나서는 것처럼 뻔뻔스럽고 무례하게 보일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동양인들은 각자가 그러한 체면이라는 옷을 입고 있음을 모두가 알기 때문에 그것을 타인 앞에서 벗어버리는 일이 오히려 자연스럽지 못한 일, 또는 부끄러운 일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체면의 상실에 있어서도 서양인과 동양인이 가지는 의미의 차가 클 수 있는데,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서양에서는 체면의 상실로 인해 당혹감, 얼굴 붉힘, 회합의 자연스러운 진행의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였다. 반면에 동양 사회에서의 체면 상실은 당혹감보다도 훨씬 그 강도가 세고, 자아 전체를 영향권으로 하는 수치심을 유발하며, 결과적으로 체면을 잃는다는 것은 곧 그 사람의 사회적 영향력이나 권력의 상당 부분을 상실하는 것과 같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하여 동양에서의 체면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Kim & Nam, 1998).

### 3) 체면과 전문적 도움 추구 행동의 관계

Markus & Kitayama(1991)는 개인주의적 사회에서는 자아를 자율적이며, 독립적이고 독특한 개인으로서 개념화하고 있지만, 집단주의적 사회에서 자아는 한 개인이 속한 사회망에 의해서 정의되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집단의 다른 구성원들과 조화로운 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것이 핵심적인 문화규범으로 받아들여진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는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 자신의 독립성을 주장하는 것보다 더 중요성을 가지게 되고, 그러한 사회화 과정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체면이라는 개념이 하나의 사회적 통제 메커니즘으로 발달되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체면의식이 발달한 한국사회에서는 서구에서보다 자신의 역할 수행

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데, 자신의 역할 수행에 책임을 다했다는 것은 남을 대하기에 자신의 도리를 다했으므로 떳떳함을 느낄 것이다. 반면에 자신의 역할 수행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여 자신의 도리를 다하지 못했다면, 이는 자신의 인격과 능력의 부족으로 인한 것이라 타인에게 인식될 것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부끄러움을 느낄 것이다.

때문에 한 개인이 자신의 심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담과 같은 전문적 도움을 구한다는 것은, 자신의 신분이나 지위에 맞는 역할이나 도리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타인에게 알리는 격이 될 수 있다고 여겨진다. 이로 인해 자신의 무능함이나 인격의 부족이 타인과 자신에게 인정되어 부끄러움을 느낄 수 있고, 이 때문에 자신에게 결함이 있어 사회적으로 수용 받을 수 없을 것이라 여길 수 있어 이러한 심리적 문제에 대한 도움을 꺼릴 수 있다고 예상된다.

하정희(2010)는 대학생 217명을 대상으로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전문적 도움추구태도와 관련성을 살펴보고 이들 간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조절효과를 알아보았다. 완벽주의적 자기제시란 남들에게 완벽하게 보이고자 하는 욕구를 의미하는 것으로(Hewitt et al., 2003) 타인에게 완벽하게 지각된다고 생각하는 행동은 촉진하고, 불완전하게 지각된다고 생각되는 행동은 은폐하려는 특성을 말한다. Hewitt 등(2003)은 완벽주의적 자기제시가 다차원적인 개념이며 세 가지 하위요인 즉 ‘완벽주의적 자기노력’, ‘불완전함 은폐 노력-행동적’, ‘불완전함 은폐 노력-언어적’으로 이루어져있다고 설명한다. 연구결과,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하위변인과 전문적 도움추구태도 간에 부분적으로 관련성을 나타내었으며,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의 하위변인인 ‘불완전함 은폐 노력-언어적’이 전문적 도움추구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하였다. ‘불완전함 은폐 노력-언어적’이란 자신의 불완전함을 나타내는 실수나 결함들을 남들 앞에서 인정하거나 말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체면 또한 사회적으로 인정받기 위해 도덕적으로나 능력적으로 부족함을

드러내 보이지 않기 위해 내세우는 언행이라는 면에서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유사한 개념이라 여겨진다. 이와 관련된 연구를 살펴보면, 체면의 하위요소는 MMPI의 타당도 척도인 L, K와는 일관성 있게 부적인 관계를 보이고, F척도와는 정적인 관계를 보여, 체면의 요구가 높을수록 경거망동이나 자신을 정적으로 드러내 보이지 않으려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하였다(최상진, 양병창, 1999; 안근석, 2000, 재인용). 또한 사회적 과묵성과 체면과의 관계성을 탐색한 연구에서, 사회적 과묵성은 체면욕구척도의 자존심방어욕구, 신분-지위부착욕구, 무리귀속욕구와 정적인 상관을 보였으며, 체면민감성 척도의 하위요인인 자괴의식성체면, 타인의식성체면과 모두 정적으로 유의한 상관을 보여, 체면수준이 높을수록 자신에 대한 표현을 삼간다는 것을 시사하였다(안근석, 양병창, 2000). 이에 체면 또한 전문적 도움 추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론할 수 있겠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심리적 불편감이나 어려움으로 인해 상담과 같은 전문적인 도움을 추구하는 경향이 높지만 체면을 의식하는 수준에 따라 전문적 도움 추구의 가능성이 변화될 수 있을 것에 근거를 두어 시행하고자 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상담과 같은 전문적 도움 추구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중에,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개인적 요인인 심리적 불편감과, 상대적으로 연구가 미비한 문화적 요인인 체면의 상호작용이 전문적 도움 추구 태도, 의도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알아보하고자 하였다.

### Ⅲ.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서울, 경기지역의 20대 이상부터 60대까지의 성인 남녀 3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회수된 설문지는 총 331부였으나, 문항이 누락되었거나 불성실하게 응답한 자료를 제외한 총 307명의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대상의 성별, 연령, 최종학력, 직업, 월 평균 수입, 타문화권에 서의 거주 여부와 거주 기간의 분포는 <표 1>과 같다.

<표 1> 연구 대상의 인구학적 특성

변인	구분	빈도(명)	백분율(%)
성별	남	127	41.4
	여	180	58.6
연령	20대	101	32.9
	30대	100	32.6
	40대	43	14.0
	50대	47	15.3
	60대	15	4.9
	무응답	1	.3
최종 학력	초졸	1	.3
	중졸	4	1.3
	고졸	51	16.6
	대졸	203	66.1
	석사	46	15.0
	박사	2	.7
직업	학생	31	10.1
	전문직	84	27.4
	사무직	93	30.3
	판매직	3	1.0
	생산직	11	3.6
	자영업	17	5.5

	전업주부	49	16.0
	무직	4	1.3
	기타	15	4.9
월 평균 수입	150만원 미만	15	4.9
	150만원 이상 ~ 250만원 미만	98	31.9
	250만원 이상 ~ 350만원 미만	59	19.2
	350만원 이상 ~ 450만원 미만	34	11.1
	450만원 이상 ~ 550만원 미만	21	6.8
	550만원 이상	26	8.5
	수입 없음	54	17.6
타문화권의 거주 여부	있음	65	21.2
	없음	242	78.8
	합계	307	100
타문화권의 거주 지역	남아메리카	2	.7
	북아메리카	21	7.2
	오세아니아	2	.7
	아시아	24	7.8
	유럽	9	2.9
	아프리카	1	.3
	북아메리카, 아시아	1	.3
	북아메리카, 유럽	2	.7
	아시아, 아프리카	1	.3
	북아메리카, 아시아, 유럽	1	.3
	북아메리카, 아시아, 아프리카	1	.3
		합계	65
타문화권의 거주 기간	3개월 미만	2	.7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7	2.3
	6개월 이상 ~ 1년 미만	11	3.6
	1년 이상 ~ 2년 미만	16	5.2
	2년 이상 ~ 3년 미만	6	2.0
	3년 이상	23	7.5
	합계	65	21.2

분포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성별’로는 남자가 127명으로 41.4%, 여자가 180명으로 58.6%였으며 비교적 고른 분포였다. ‘연령’으로는 20대가 101명으로 32.9%, 30대가 100명으로 32.6%로 가장 많았다. ‘최종학력’으로는 대졸이

203명으로 66.1%로 가장 많았으며, 고졸이 51명으로 16.6%, 석사가 46명으로 15%로 비슷하였다. ‘직업’은 사무직이 93명으로 30.3%, 전문직이 84명으로 27.4%로 비슷하게 가장 많았고, 전업주부가 49명으로 16%였다. ‘월 평균 수입’은 150만원 이상 ~ 250만원 미만은 98명으로 31.9%로 가장 많았고, 학생과 전업주부의 참여로 수입없음이 54명으로 17.6%였다. 한국 이외의 다른 문화권에서 거주한 적이 있는 사람은 65명으로 21.2%, 거주한 적이 없는 사람은 242명으로 78.8%였다. 거주한 적이 있는 사람들 중에 ‘거주 지역’은 아시아가 24명으로 7.8%, 북아메리카가 21명으로 6.8%로 가장 많았다. ‘거주 기간’은 3년 이상이 23명으로 7.5%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1년 이상 ~ 2년 미만이 16명으로 5.2%였다.

## 2. 측정도구

### 1) 심리적 불편감

심리적 불편감을 측정하기 위해 Derogatis(1976)가 Hopkins Symptom Checklist(HSCL)를 발전시켜 제작한 90문항의 Symptom Checklist(SCL-90)를 김광일, 김재환, 원호택(1984)이 표준화하여 제작한 한국판 간이정신진단 검사(SCL-90-R)을 사용하였다. 본 질문지는 총 9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운데 83개 문항을 9가지 증상 차원으로 분류 채점되고 나머지 7개 문항은 채점되지 않지만 임상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 척도에서 측정하는 본래 9가지 증상은 신체화, 강박증, 대인민감성, 우울, 불안, 적대감, 공포불안, 편집증, 정신증이지만, 이미경, 김아름, 최성인, 남숙경, 이상민(2010)은 비교적 일반적이고 흔한 문제라 할 수 있는 우울, 불안 및 대인민감성 변인만을 사용하여 심리적 불편감을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일반인들이 주로 상담을 받게 되는 신경증적 변인들인 우울, 불안 및 대인민감성에 초점을 맞

어 32문항의 동일한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응답자는 지난 7일 동안 경험한 증상의 정도에 따라 자신의 심리적 불편감을 잘 나타내는 정도를 5점 리커트 척도로 1점부터 5점까지 응답하도록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 불안, 대인관계 문제로 인해 심리적 불편감이 크다는 것을 반영한다.

현미숙(2003)의 연구에서 이 척도의 전체 신뢰도(Cronbach  $\alpha$ )는 .98이었고, 본 연구에서 보고된 Cronbach  $\alpha$ 값은 .95이었다.

## 2) 체면

체면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최상진, 양병창(1999)의 체면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질문지는 총 32개의 문항으로 체면욕구와 체면민감성인 2개의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각 하위척도의 내용을 살펴보면 체면욕구에는 ‘자존심 방어 욕구’, ‘신분-지위 부착 욕구’, ‘인격 품위 유지 욕구’, ‘무리 귀속 욕구’, ‘우월감 추구 욕구’ 5가지가 있으며, 체면 민감성에는 ‘창피 의식성 체면’, ‘자괴 의식성 체면’ 2가지가 있다. 각 문항은 7점 리커트 척도로 1부터 7까지 응답하도록 되어 있으며, 체면욕구와 체면 민감성을 합하여 높은 점수를 받을수록 체면수준이 높은 것이다.

최상진과 양병창(1999)의 연구에서 신뢰도(Cronbach  $\alpha$ )는, 욕구척도 전체가 .815, 하위 척도의 경우 .519-.752까지의 범위를 보였으며, 민감성 척도 전체가 .820, 하위 척도의 경우 .609-.805의 범위를 보였다. 안근석(2000)의 연구에선, 욕구척도 전체가 .82, 하위척도의 경우 .62-.71의 범위를 보였으며, 민감성 척도 전체가 .84, 창피성 체면과 자괴성 체면이 각각 .76과 .72였다. 본 연구에서 보고된 Cronbach  $\alpha$ 값은 <표 2>과 같다.

<표 2> 체면 수준 척도의 문항 구성 및 Cronbach  $\alpha$  값

하위 요인		문항번호	문항수	Cronbach $\alpha$
체면 욕구	자존심 방어욕구	15, 17, 18, 19	4	.82
	신분-지위 부착 욕구	21, 22, 29, 30	4	.82
	인격 품위 유지 욕구	4, 6, 12, 20	4	.74
	무리 귀속 욕구	26, 27, 32	3	.75
	우월감 추구 욕구	5, 9, 10, 11	4	.79
합계			19	.91
체면 민감성	창피 의식성 체면	5, 21, 26, 30, 35	5	.82
	자괴 의식성 체면	12, 22, 27, 31, 39	5	.82
	합계			13
전체			32	.95

### 3) 전문적 도움 추구 태도

전문적 도움 추구 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Fisher와 Turner(1970)가 개발한 전문적 도움 추구 태도 척도(Attitudes Toward Seeking Professional Psychological Help Scale; ATSPPH)를 사용하였다. 본 질문지는 총 29개의 문항과 4개의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각 하위척도의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상담이나 심리치료와 같은 전문적인 도움이나 전문가에 대한 신뢰감을 의미하는 신뢰감(Confidence) 하위척도, 둘째, 정신 병리에 대한 낙인수용 정도를 의미하는 낙인 수용(stigma) 하위척도, 셋째, 상담에 대한 욕구를 측정하는 필요성(Need) 하위척도, 넷째, 자신의 문제에 대한 개방정도를 의미하는 개방성(Openness)하위척도가 있다. 각 문항은 4점 리커트 척도로 1점부터 4점까지 응답하도록 되어 있으며, 높은 점수를 받을수록 전문적 도움 추구에 긍정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유성경(1997)이 번역하여, 유성경(2005)이 재수정한 것을 사용하였다.

본 질문지를 서구인들을 대상으로 하였을 때 전체 신뢰도(Cronbach  $\alpha$ )는

.80-.84, 각각의 하위척도는 욕구척도가 .67, 오점수용척도가 .70, 개방성척도가 .62, 신뢰감척도가 .74로 보고되어 비교적 신뢰로운 질문지로 평가되고 있다(Fisher & Turner, 1970). 또한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하였을 때, 유성경과 유정이(2000)의 연구에선 전체 신뢰도가 .60이상의 수준이며, 김주미와 유성경(2002)의 연구에선 전체 신뢰도가 .80으로 측정되어 만족할만한 신뢰도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유성경(2005)은 ATSPPH의 4요인 구조가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도 적합한 구조이나, 몇몇 문항들은 요인 부하량이 .03이하의 값을 보여 부적합하다고 하였고, 상담, 심리치료, 정신치료라는 용어도 각각 구별해야 한다고 하여 세 가지용으로 질문지를 수정하였다. 수정된 문항의 전체 신뢰도는 .83으로 각각 하위요인 별로는 상담에 대한 욕구 척도가 .73, 오점수용 정도는 .60, 개방성 척도는 .48, 신뢰감 척도는 .71이었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Cronbach  $\alpha$ 를 산출한 결과, 본 질문지는 전체적으로 만족할 만한 신뢰도를 보이고 있으나, 하위척도별로 보았을 때는 필요성 척도와 개방성 척도의 신뢰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 각 하위척도 별로 분석할 때에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겠다. 본 연구에서 보고된 Cronbach  $\alpha$ 값은 <표 3>와 같다.

<표 3> 전문적 도움 추구 태도 척도의 문항 구성 및 Cronbach  $\alpha$ 값

하위 요인	문항번호	문항수	Cronbach $\alpha$
신뢰감	1*, 2, 8*, 10, 11, 13*, 16*, 19	8	.73
낙인 수용	3*, 12*, 17*, 22, 23	5	.61
필요성	4*, 5, 6*, 9*, 15, 20, 21*	7	.50
개방성	7, 14*, 18*, 24*	4	.37
	전체	24	.81

\* 역채점 문항

#### 4) 전문적 도움 추구 의도

전문적 도움 추구에 대한 의도를 측정하기 위해 Cash, Begley, McCon과 Weise(1975)에 의해 개발된 상담 의도 목록(Intentions to Seek Counseling Inventory; ISCI)을 사용하였다. 본 질문지는 총 17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응답자들이 열거된 문제들을 겪을 때 어느 정도 상담을 받고 싶을 지를 6점 리커트 척도로 1점에서 6점까지 응답하도록 되어있다. 본 연구에서는 Vogel과 Wester(2003)가 4점 척도로 수정한 질문지를 채택하여 사용하였다. 질문지에 실린 문제들은 대인관계문제, 우울, 개인적인 걱정거리, 약물복용문제와 같은 것들인데, 본 연구에서는 일반인들이 겪는 신경증적인 증상들과 다양한 연령대에 초점을 맞추어 본 연구자가 수정한 10문항의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상담을 받고자 하는 경향이 높음을 나타낸다.

ISCI는 서구인들을 대상으로 하였을 때 신뢰도(Cronbach  $\alpha$ )는 .84-.95로 비교적 안정적인 신뢰도를 나타내고 있으며,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신연희와 안현의(2005)의 연구에서는 .89의 신뢰도를 보였다. 본 연구에서 보고된 Cronbach  $\alpha$ 값은 <표 4>와 같다.

<표 4> 전문적 도움 추구 의도 척도의 Cronbach  $\alpha$ 값

	하위 요인	문항번호	문항수	Cronbach $\alpha$
행동상의 문제	체중조절, 성, 음주 또는 약물 복용	1, 2, 4	3	.56
관계상의 문제	대인관계, 가족, 이성	3, 7, 9	3	.77
심리·정서문제	우울증, 불안, 성격	5, 6, 8	3	.86
진로문제	직업 및 진로	10	1	
전체				.88

### 3.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PASW Statistics 18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자료를 분석하였다.

첫째,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성별, 연령, 최종 학력, 직업, 월 평균 수입, 타문화권의 거주 여부와 지역, 기간별로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주요 변인들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알아보기 위하여 기술통계량 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주요 변인들 간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주요 변인들에 관한 성별, 연령, 직업의 집단 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독립표본 t검정과 일원배치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섯째, 심리적 불편감과 전문적 도움 추구 태도와의 관계에 있어서 체면 수준의 조절효과를 살펴보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적용한 상호작용 효과를 검증하였다.

여섯째, 심리적 불편감과 전문적 도움 추구 의도와의 관계에 있어서 체면 수준의 조절효과를 살펴보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적용한 상호작용 효과를 검증하였다.

## IV. 연구결과

### 1. 주요 변인들의 평균과 표준편차 및 상관계수

수집된 307명의 자료를 대상으로 본 연구의 심리적 불편감, 체면수준, 전문적 도움 추구 태도, 전문적 도움 추구 의도의 평균과 표준편차, 상관 분석 결과를 다음 <표 5>에 제시하였다.

우선 변인들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살펴보면, 심리적 불편감은 총점 160점에서 응답자들의 평균이 61.81점으로 점수가 매우 낮았다. 다음으로 체면수준은 총점 224점에서 응답자들의 평균이 138.86점으로 척도의 중간값보다 높았다. 전문적 도움 추구 태도는 총점 96점에서 응답자들의 평균이 69.48점으로 척도의 중간값보다 높았으며, 전문적 도움 추구 의도는 총점 40점으로 응답자들의 평균은 23.78점으로 척도의 중간값보다 약간 높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심리적 불편감의 호소가 낮았으며 체면 수준은 평균 이상이였다. 전문적 도움 추구 태도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태도를 나타냈으며, 전문적 도움 추구 의도에서는 매우 긍정적이지도 매우 부정적이지도 않은 보다 중립적인 의도를 나타냈다.

상관 분석 결과. 먼저 ‘심리적 불편감’은 ‘전문적 도움 추구 태도’와 유의하지 않은 관련성을 나타냈고, ‘의도’와는 유의한 정적 관련성( $r=.219, p<.05$ )을 나타냈다. 이는 심리적 불편감을 많이 느낄수록 전문적 도움 추구 의도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면에 심리적 불편감과 전문적 도움 추구 태도는 본 연구에서 상관이 유의하지 않았다.

‘전문적 도움 추구 태도’와 ‘전문적 도움 추구 의도’는 유의한 정적 관련성을 나타냈다( $r=.133, p<.01$ ). 이는 전문적 도움 추구 태도가 긍정적일수록 전문적 도움추구 의도도 증가하는 경향이 있음을 나타낸다.

‘심리적 불편감’은 ‘체면 수준’과 그 하위요인인 ‘체면 욕구’와 ‘체면 민감성’

과 모두 유의한 정적 관련성( $r=.341$ ,  $r=.287$ ,  $r=.379$   $p<.05$ )을 나타냈다. 이는 심리적 불편감을 적게 느낄수록 체면을 차리는 행동도 적을 수 있으며, 심리적 불편감을 많이 느낄수록 체면을 더 많이 차리는 경향이 있을 수 있겠다.

‘체면 수준’은 ‘전문적 도움 추구 태도’와 그 하위요인인 ‘낙인 수용’, ‘개방성’과 부적 관련성을 나타냈다( $r=-.190$ ,  $-.330$ ,  $-.232$ ,  $p<.05$ ). 이는 체면을 많이 차릴수록 전문적 도움 추구 태도가 부정적일 수 있고, 상담으로 인해 낙인 찍히는 것에 대한 수용의 정도가 낮을 수 있으며, 대인관계에서의 개방성 정도가 낮을 수 있음이 시사된다. 반면에, ‘체면 수준’과 ‘전문적 도움 추구 의도’는 정적인 관련성을 나타냈는데( $r=.206$ ,  $p<.05$ ), 이는 체면을 많이 차릴수록 전문적인 도움을 받으려 가는 의도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의도의 하위요인별로 체면과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체중조절과 과도한 음주 또는 약물 복용 문제, 성 문제와 같은 행동상의 문제에 대한 의도는 체면과 유의하지 않은 상관을 나타냈다. 따라서 체면을 많이 차릴수록 전문적 도움 추구 태도는 부정적인 경향이 있고, 반면에 전문적 도움 추구 의도는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 서로 상반적인 결과를 보였으며, 의도의 하위요인 중 행동상의 문제와 체면은 유의하지 않은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표 5> 연구변인 간 평균, 표준편차 및 상관계수

N=307

	1	2	2-1	2-2	3	3-1	3-2	3-3	3-4	4	4-1	4-2	4-3	4-4
1 심리적 불편감	1	.341**	.287**	.379**	-.095	-.086	-.208**	.137*	-.200**	.219**	.074	.190**	.250**	.227**
2 체면 수준 (전체)		1	.971**	.950**	-.190**	-.076	-.330**	-.020	-.232**	.206**	.087	.195**	.207**	.220**
2-1 체면 욕구			1	.854**	-.187**	-.085	-.315**	-.021	-.217**	.184**	.068	.178**	.181**	.213**
2-2 체면 민감성				1	-.194**	-.069	-.332**	-.025	-.249**	.220**	.106	.201**	.225**	.209**
3 전문적도움추구태도 (전체)					1	.852**	.728**	.767**	.633**	.133*	.060	.109	.151**	.124*
3-1 신뢰감						1	.476**	.525**	.408**	.131*	.102	.083	.141*	.104
3-2 낙인수용							1	.380**	.395**	.030	-.028	.016	.065	.057
3-3 필요성								1	.322**	.193**	.049	.024**	.209**	.191**
3-4 개방성									1	-.006	.029	-.017	-.016	-.026
4 전문적도움추구의도 (전체)										1	.774**	.915**	.895**	.627**
4-1 행동상의 문제											1	.575**	.525**	.338**
4-2 관계상의 문제												1	.792**	.573**
4-3 심리·정서 문제													1	.460**
4-4 진로 문제														1
M	61.81	138.86	84.56	54.30	69.48	23.55	15.15	12.22	18.57	23.78	6.31	7.07	7.88	2.52
SD	19.65	29.31	17.28	13.18	8.28	3.58	2.47	1.86	2.93	6.92	2.26	2.30	2.72	1.00

\* p < .05, \*\* p < .01,

## 2. 인구 통계학적 자료에 따른 연구 변인에서의 차이

심리적 불편감, 체면 수준, 전문적 도움 추구 태도, 전문적 도움 추구 의도에 있어서 성별, 연령, 직업별로 집단 간 차이를 검증하였다.

### 1) 성별에 따른 연구변인에서의 차이

성별로 연구변인에서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6> 성별에 따른 연구변인에서의 차이 검증

측정변인	남자(N=127)	여자(N=180)	t값
	M(SD)	M(SD)	
심리적불편감	1.87(.63)	1.98(.60)	-1.530
체면 수준	4.29(.91)	4.38(.92)	- .808
전문적 도움 추구 태도	2.86(.35)	2.92(.34)	-1.379
1. 신뢰감	2.90(.46)	2.98(.44)	-1.508
2. 낙인 수용	3.02(.52)	3.04(.48)	- .403
3. 필요성	2.62(.42)	2.68(.42)	-1.264
4. 개방성	3.03(.46)	3.07(.47)	- .703
전문적 도움 추구 의도	2.24(.71)	2.48(.67)	-2.957*
1. 행동상의 문제	2.05(.75)	2.14(.75)	-1.019
2. 관계상의 문제	2.21(.79)	2.46(.74)	-2.877*
3. 심리·정서문제	2.40(.96)	2.78(.83)	-3.617*
4. 진로 문제	2.43(.99)	2.59(1.00)	-1.467

\* p < .05

성별에 따라 연구변인들에서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심리적 불편감, 체면

수준, 전문적 도움 추구 태도와 그 하위요인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전문적 도움 추구 의도( $t=-2.957, p<.05$ )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하위요인별로 살펴본 결과, 관계상의 문제에 대한 의도( $t=-2.877, p<.05$ )와 심리·정서 문제에 대한 의도( $t=-3.617, p<.05$ )에서 유의한 성별 차이를 나타냈다. 결과적으로, 남자보다 여자가 전문적 도움을 받고자 하는 의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내용에는 관계상의 문제와 심리 및 정서와 관련한 문제에 대해 전문적인 도움을 받고자 하는 의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2) 연령에 따른 연구변인에서의 차이

연령별로 연구변인에서의 집단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20대, 30대, 40대~60대를 대상으로 일원배치분산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 7>과 같다.

<표 7> 연령에 따른 연구변인에서의 차이 검증

변인	20대 <sup>a</sup>	30대 <sup>b</sup>	40~60대 <sup>c</sup>	F값	사후검정
	(N=101) M(SD)	(N=100) M(SD)	(N=105) M(SD)		
심리적불편감	2.08(.64)	1.87(.62)	1.84(.56)	4.537*	a>c
체면 수준	4.45(.71)	4.34(.93)	4.22(1.05)	1.663	-
전문적도움추구태도	2.89(.35)	2.84(.35)	2.96(.32)	2.975	-
1. 신뢰감	2.85(.44)	2.87(.41)	3.10(.46)	10.290*	c>a,b
2. 낙인수용	3.04(.41)	3.00(.52)	3.05(.45)	.302	-
3. 필요성	2.71(.46)	2.61(.44)	2.64(.36)	1.656	-
4. 개방성	3.08(.45)	2.99(.52)	3.10(.42)	1.795	-
전문적도움추구의도	2.46(.65)	2.24(.67)	2.43(.74)	3.078*	-
1. 행동상의 문제	2.02(.74)	1.99(.74)	2.28(.76)	4.809*	c>a,b

2. 관계상의 문제	2.47(.75)	2.22(.75)	2.38(.79)	2.592	-
3. 심리·정서문제	2.77(.89)	2.49(.86)	2.62(.95)	2.646	-
4. 진로 문제	2.85(.91)	2.27(.98)	2.45(1.02)	9.465*	a>b,c

\* p < .05

연령에 따라 연구변인들에서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심리적 불편감을 지각하는 것(F=4.537, p<.05), 전문적 도움 추구 태도의 하위요인인 신뢰감(F=10.290, p<.05), 전문적 도움 추구 의도(F=3.078, p<.05)와 그 하위요인인 행동상의 문제(F=4.809, p<.05), 진로 문제(F=9.465, p<.05)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심리적 불편감은 연령대가 낮을수록 더 많이 호소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집단 간의 유의한 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후검정인 Tukey 분석을 실시한 결과, 20대(M=2.08)가 40대~60대(M=1.84)보다 심리적 불편감을 더 많이 나타냈다.

전문적 도움 추구 태도 전체에서는 연령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하위요인인 신뢰감(F=10.290)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집단 간의 유의한 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후검정인 Tukey 분석을 실시한 결과, 40~60대(M=3.10)가 20대(M=2.85)와 30대(M=2.87)보다 전문적인 도움이나 전문가에 대한 신뢰감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적 도움 추구 의도 전체에서는 연령에 따라 유의한 차이(F=3.078, p<.05)가 나타났지만, 사후 검정인 Tukey 분석에서 집단 간의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에 의도의 하위요인인 행동상의 문제(F=4.809, p<.05)와 진로 문제(F=9.465, p<.05)에서 연령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 이에 Tukey 분석 결과 진로 문제에 대해선 20대(M=2.85)가 30대(M=2.27)와, 40~60대(M=2.45)보다 전문적인 도움을 받고자 하는 의도가 더 높았으며, 행동상의 문제에 대해선 40~60대(M=2.28)가 20대(M=2.02)와 30대(M=1.99)보다

전문적인 도움을 받고자 하는 의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3) 직업에 따른 연구변인에서의 차이

직업별로 연구변인에서의 집단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학생, 전문직, 사무직, 판매직과 생산직과 자영업, 전업주부를 대상으로 일원배치분산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 8>과 같다.

<표 8> 직업에 따른 연구변인에서의 차이 검증

변인	학생 <sup>a</sup> (N=31)	전문직 <sup>b</sup> (N=84)	사무직 <sup>c</sup> (N=93)	판매직, 생산직, 자영업 <sup>d</sup> (N=31)	전업 주부 <sup>e</sup> (N=49)	F 값	사후 검정
	M(SD)	M(SD)	M(SD)	M(SD)	M(SD)		
심리적불편감	2.27(.74)	1.81(.60)	1.96(.60)	1.90(.67)	1.85(.51)	3.523*	a>b,e
체면 수준	4.48(.78)	4.48(.91)	4.37(.86)	4.16(.96)	4.06(1.09)	2.050	-
전문적 도움 추구 태도	2.96(.38)	2.82(.36)	2.88(.35)	2.86(.32)	3.04(.28)	3.340*	e>b
1. 신뢰감	2.87(.46)	2.87(.44)	2.91(.45)	2.97(.41)	3.18(.40)	4.771*	e>a,b,c
2. 낙인수용	3.14(.56)	3.00(.49)	2.98(.53)	3.01(.47)	3.16(.41)	1.550	-
3. 필요성	2.82(.48)	2.59(.43)	2.67(.43)	2.57(.32)	2.67(.38)	2.192	-
4. 개방성	3.14(.49)	2.93(.45)	3.08(.47)	2.99(.44)	3.23(.39)	3.766*	e>b
전문적 도움 추구 의도	2.56(.61)	2.40(.69)	2.38(.60)	2.31(.80)	2.40(.78)	.589	-
1. 행동상의문제	2.05(.83)	2.06(.77)	2.10(.68)	2.16(.82)	2.32(.77)	1.105	-
2. 관계상의문제	2.54(.72)	2.45(.80)	2.34(.68)	2.27(.81)	2.27(.85)	.987	-
3. 심리정서문제	2.96(.78)	2.64(.86)	2.61(.86)	2.47(1.02)	2.62(.96)	1.295	-

4.진로문제 2.94(.85) 2.54(.95) 2.60(1.00) 2.35(.95) 2.33(1.09) 2.203 -

\*p < .05

직업집단에 따라 연구변인에서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심리적 불편감을 지각하는 것(F=3.523, p<.05), 전문적 도움 추구 태도(F=3.340, p<.05) 그리고 태도의 하위요인인 신뢰감(F=4.771, p<.05), 개방성(F=3.766, p<.05)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심리적 불편감은 학생집단(M=2.27)이 가장 많이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으며, 그 다음으로는 사무직 집단(M=1.96)이 심리적 불편감을 호소하였다. 집단 간의 유의한 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후검정인 Tukey 분석을 실시한 결과, 학생집단(M=2.27)이 전문직 집단(M=1.81)과 전업주부 집단(M=1.85)보다 심리적 불편감을 더 많이 나타냈다.

전문적 도움 추구 태도 전체에서는 전업주부 집단(M=3.04)이 가장 긍정적인 태도를 나타냈으며, 그 다음으로는 학생 집단(M=2.96)이 긍정적인 태도를 나타냈다. 집단 간의 유의한 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후검정인 Tukey 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업주부 집단(M=3.04)이 전문직 집단(M=2.82)보다 전문적 도움 추구에 대해 더 긍정적인 태도를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문적 도움 추구 태도의 하위요인들 중 몇몇에서도 직업 별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먼저 신뢰감은 전업주부 집단(M=3.18)이 가장 높았으며, 사후 검정인 Tukey 분석 결과 전업주부 집단이(M=3.18) 학생 집단(M=2.87)과 전문직 집단(M=2.87), 사무직 집단(M=2.91)보다 전문적 도움이나 전문가에 대한 신뢰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로 개방성에서도 전업주부 집단(M=3.23)이 가장 높았으며, 사후 검정인 Tukey 분석 결과 전업주부 집단이(M=3.23)이 전문직 집단(M=2.93)보다 자신의 문제에 대해 개방하는 정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3. 심리적 불편감과 전문적 도움 추구 태도의 관계에서 체면의 조절효과

본 연구에서는 심리적 불편감과 전문적 도움 추구 태도와의 관계가 체면 수준에 따라 달라지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선,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변인들을 z점수로 표준화하였다. 위계적 회귀분석에서는 1단계에서 심리적 불편감과 전문적 도움 추구 태도를 투입하였고, 2단계에서 심리적 불편감, 체면수준과 전문적 도움 추구 태도를 투입하였고, 3단계에서는 심리적 불편감, 체면수준, 심리적 불편감과 체면수준의 상호작용항과 전문적 도움 추구 태도를 투입하였다. 조절효과 분석의 1단계, 2단계, 3단계 과정에서 마지막 제 3단계에서 상호작용항(독립변수×조절변수)를 회귀식에 추가로 투입하였을 때, 설명력(R<sup>2</sup>)이 유의수준하에서 유의하게 증가하였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를 <표 9>에 제시하였다.

<표 9> 체면수준에 따른 심리적 불편감과 전문적 도움추구태도와의 관계

모형	R	R제곱	수정된 R제곱	추정값의 표준오차	통계량 변화량				유의확률 F변화량
					R제곱 변화량	F 변화량	df1	df2	
1	.160 <sup>a</sup>	.026	.022	5.17208	.026	8.013	1	305	.005
2	.229 <sup>b</sup>	.052	.046	5.10931	.027	8.540	1	304	.004
3	.234 <sup>c</sup>	.055	.045	5.11102	.002	.797	1	303	.373

a. 예측값: (상수), 심리적 불편감

b. 예측값: (상수), 심리적 불편감, 체면수준

c. 예측값: (상수), 심리적 불편감, 체면수준, 상호작용항(심리적불편감×체면수준)

검정한 결과, R 제곱은 모형 1은 2.6%, 모형 2는 5.2%, 모형 3은 5.5%로 점점 더 증가하고 있지만, 제 3단계의 유의확률이 .373으로 나타나 유의한 범위(<.05)에서 증가하지 않아 조절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체면수준은 심

리적 불편감과 전문적 도움 추구 태도 간의 관계에서 조절작용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4. 심리적 불편감과 전문적 도움 추구 의도의 관계에서 체면의 조절효과

심리적 불편감과 전문적 도움 추구 의도와와의 관계가 체면 수준에 따라 달라지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위 3번과 같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변인들을 z점수로 표준화하였다. 위계적 회귀분석에서는 1단계에서 심리적 불편감과 전문적 도움 추구 의도를 투입하였고, 2단계에서 심리적 불편감, 체면수준과 전문적 도움 추구 의도를 투입하였고, 3단계에서는 심리적 불편감, 체면수준, 심리적불편감과 체면수준의 상호작용항과 전문적 도움 추구 의도를 투입하였다. 조절효과 분석의 1단계, 2단계, 3단계 과정에서 마지막 제 3단계에서 상호작용항(독립변수×조절변수)를 회귀식에 추가로 투입하였을 때, 설명력(R<sup>2</sup>)이 유의수준 하에서 유의하게 증가하였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를 <표 10>에 제시하였다.

<표 10> 체면수준에 따른 심리적 불편감과 전문적 도움추구의도와와의 관계

모형	R	R제곱	수정된 R제곱	추정값의 표준오차	통계량 변화량				유의확률 F변화량
					R제곱 변화량	F 변화량	df1	df2	
1	.216 <sup>a</sup>	.047	.044	6.76290	.047	14.926	1	305	.000
2	.258 <sup>b</sup>	.067	.061	6.70236	.020	6.534	1	304	.011
3	.263 <sup>c</sup>	.069	.060	6.70418	.003	.835	1	303	.362

a. 예측값: (상수), 심리적 불편감

b. 예측값: (상수), 심리적 불편감, 체면수준

c. 예측값: (상수), 심리적 불편감, 체면수준, 상호작용항(심리적불편감×체면수준)

검정한 결과, R 제곱은 모형 1은 4.7%, 모형 2는 6.7%, 모형 3은 6.9%로 점점 더 증가하고 있지만, 유의확률이 .362으로 나타나 유의한 범위( $<.05$ )에서 증가하지 않아 조절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체면수준은 심리적 불편감과 전문적 도움 추구 의도 간의 관계에서 조절작용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V. 논 의

### 1. 결과에 대한 논의

본 연구는 20대부터 60대까지의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심리적 불편감과 전문적 도움 추구 태도 및 전문적 도움 추구 의도 간의 관계에서 체면이 조절 효과를 나타내는지 알아보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주요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연구문제 1과 관련하여 심리적 불편감과 전문적 도움 추구 태도와 의도가 서로 관계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심리적 불편감은 전문적 도움 추구 태도와 유의하지 않은 관련성을 나타내 본래 정적인 관련성을 가질 것이라는 가설 1-1은 기각되었다. 이 결과와 관련하여,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김주미와 유성경(2002)의 연구에선 162명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심리적 불편감과 전문적 도움 추구 태도 간의 유의한 부적 상관을 나타내었고, 신연희와 안현의(2005)의 연구에서는 394명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심리적 불편감과 전문적 도움 추구 태도 간의 유의하지 않은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한편, 심리적 불편감은 전문적 도움 추구 의도와 유의한 정적 관련성을 나타내어, 심리적 불편감이 높을수록 전문적 도움 추구 의도가 증가할 것이라는 가설 1-2는 채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여러 선행연구들의 연구 결과와 (Rickwood & Braithwaite, 1994; 신연희, 안현의, 2005; 유영란, 이지연, 2006; 장영임, 1999) 일치하는 부분이며, 우선적으로 문제를 인식해야 도움 추구를 결정한다는 Gross와 McMullen(1982)의 도움추구과정 모델에 부합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앞서 언급한 결과와 종합해보면, 심리적 불편감과 전문적 도움 추구 태도 간의 상관 방향은 이전의 연구들에서도 일치하지 않았는데, 이는 전문

적 도움을 추구하는 태도에 심리적 불편감이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의 입장과는 다른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미뤄볼 때 전문적 도움 추구 태도가 심리적 불편감 이외의 다른 개인적 요인 즉 성별이나 지각된 사회적 지지, 자기 은폐(김주미, 유성경, 2002; 신연희, 안현의, 2005)와 더 높은 상관을 보일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여러 선행연구들과 마찬가지로 심리적 불편감과 전문적 도움 추구 의도 간에 정적인 관계가 나타난 것으로 미루어볼 때, 심리적 불편감은 전문적 도움 추구 태도보다 전문적 도움 추구 의도와 더 관련성이 높은 변인인 것으로 여겨진다.

둘째로, 체면수준은 전문적 도움 추구 태도와 유의한 부적 관계를 보였고, 태도의 하위요인 가운데 낙인 수용 그리고 개방성과 역시 유의한 부적 관련성을 나타냈다. 이는 앞서 체면과 전문적 도움 추구 행동의 관계에서 언급한 추론을 뒷받침해주는 결과라 할 수 있으며, 체면수준이 높을수록 자신에 대해서 정적으로 드러내 보이려는 경향이 낮다는 연구 결과들(안근석 양병창, 2000; 최상진, 양병창, 1999)과 일치하는 점이라 할 수 있다. 즉 체면에 대한 욕구가 높고 체면을 잃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 높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심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담과 같은 전문적 도움을 구하는 행위는 타인에게 자신의 무능함이나 인격의 부족을 알리는 것이라 인식될 수 있다. 또한 이 때문에 자신에게 결함이 있어 사회적으로 수용 받지 못할 것이라 여길 수 있으므로 체면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전문적 도움 추구에 대해서 부정적인 태도를 지닐 수 있다는 것이다. 최상진과 유승엽(1992)은 한국인에게 체면현상은 사회성취지향적이며, 겉으로 드러난 신분과 지위를 과시하려는 경향이 두드러진다고 보고하였다. 때문에 신분-지위 부작욕구가 높을수록 전문적 도움 추구에 대해서 부정적인 태도를 지닐 수 있으므로, 신분-인격·능력 균형관을 가지는 한국인들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고 사료된다.

반면에, 체면수준과 전문적 도움 추구 의도는 유의한 정적인 관련성을 나

타내어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체면을 많이 차릴수록 오히려 전문적 도움 추구 의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앞서 언급한 체면과 전문적 도움 추구 태도의 관계와는 상반된 결과를 나타냈다. 전문적 도움 추구 태도와 의도가 유의한 정적 관계를 나타내는 상황에서 체면이 이 두 변인에 대해 상반되는 결과를 나타낸다는 것은 이에 대해 보다 더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이와 비슷한 현상으로 ‘자기은폐’와 전문적 도움 추구 태도 및 의도와 의 관계를 살펴볼 수 있다. 자기 은폐란 ‘개인이 고통스럽거나 부정적이라 지각하는 사적인 정보를 타인에게 적극적으로 감추려는 경향성’(Larson & Chastain, 1990)이라 정의 될 수 있는데, 선행연구들에서 자기 은폐가 전문적 도움 추구 태도와 의도에 미치는 영향의 방향성이 일관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Kelly와 Achter(1995)의 연구에선 자기은폐 경향이 높은 사람은 자기 은폐 경향이 낮은 사람에 비해 전문적 도움 추구 태도에는 부정적이지만, 실제 상담을 받고자 하는 의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연구자들은 자기 은폐가 높은 사람들은 자신을 드러내는 것에 대해 두려움을 느껴 상담에 대한 태도는 부정적이지만, 제한된 사회적 지지로 인해 실제 상담을 받고자 하는 의도는 높을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반면에 Cepeda-Benito와 Short(1998)의 연구에선 자기 은폐 경향이 높은 사람은 자기 은폐 경향이 낮은 사람보다 상담에 대한 필요성은 3배나 높게 보고하지만 상담을 추구하기 보다는 회피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에 본 연구결과인 체면과 전문적 도움 추구 의도 간의 정적 관계에 대해 여러 가능성을 논하자면, 먼저 체면을 잃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심리적 어려움이나 고민들을 드러내는 것이 꺼려지고, 자신이 남들에게 부적응적인 사람으로 비춰질까봐 우려되어 상담과 같은 전문적인 도움 추구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지만, 자기은폐 개념과 비슷하게 체면 또한 다른 변인(예를 들어 지각된 사회적 지지)과 상호작용하여 전문적 도움 추구 의도에 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 체면을 잃

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은 전문적 의도 척도에서 묻는 문제들이 자신에게 나타나게 되면 체면을 잃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체면 손상을 경험하기 전에 그 문제를 빨리 해결하려하는 의도가 내포된 것일 수도 있다. 실제로 김창대(1994)는 한국인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문화적 요소의 영향을 받는지, 미국인 집단과 한국인 집단 간의 문제 해결 방식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았는데, 한국인 집단에서 체면을 중시하는 태도는 적극적인 문제해결이나 자기 통제와 같은 대응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보고하였다. 즉 체면을 중시하는 태도는 한국인의 정서지향적 대응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문제를 직면하고 직접적인 방식을 사용하는 경향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전문적 도움 추구에 대한 의도를 측정하는 척도가 과연 응답자들의 의도를 정확하게 측정하였는지의 의문이다. 전문적 도움 추구 의도 척도는 전문적 도움 추구 태도 척도에 비해 매우 간단한 응답만을 요구하며,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지 못하기 때문에 적절하게 응답자의 의도를 측정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응답자들의 의도를 보다 더 민감하게 측정할 수 있는 전문적 도움 추구 의도 척도에 대한 개발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며, 후속 연구에서는 체면과 전문적인 도움을 요청하는 의도와의 관계에서 또 다른 변인이 조절 혹은 매개하여 영향을 주는지를 검토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셋째로, 심리적 불편감, 체면 수준, 전문적 도움 추구 태도와 그 하위요인들, 전문적 도움 추구 의도와 그 하위요인들에 있어서 성별, 연령, 직업별로 집단 간 차이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먼저 성별에 따라서는 전문적 도움 추구 의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남자보다 여자가 전문적인 도움을 받고자 하는 의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신연희와 안현의(2005)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인관계문제, 가족문제, 이성 문제를 포함하는 관계상의 문제와, 우울증, 불안, 성격 문제와 같은 심리·정서 문제에 대한 전문적인 도움을 받고자 하는 의도가 더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이전의 선행연구들에선 남자보다 여자가 전문적 도움 추구 태도에 더 긍정적인 태도를 지닌 것으로 나타났는데(신연희, 안현의, 2005; 유성경, 이동혁, 2000), 본 연구에서는 여자의 평균점수가 남자의 평균 점수보다 높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차이를 보였다.

또한 연령을 20대, 30대 각각과 40대~60대를 묶어서 세 집단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심리적 불편감은 연령대가 낮을수록 더 많이 호소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20대 집단이 40대~60대 집단보다 유의한 차이로 심리적 불편감을 더 많이 나타냈다. 이는 정명숙(2005)의 연구에서 중고등학생과 성인보다는 노인이 삶에 대해 더 크게 만족하고 있다고 보고한 것과 비슷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즉 이러한 결과는 여러 가지 취업에 대한 압박과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는 한국인 20대의 사회적 상황을 반영한 것일 수도 있지만, 심리적 문제에 대하여 심각하다고 지각하는 정도가 연령이 높을수록 낮아지는 발달의 변화를 반영한 결과일 수도 있다고 사료된다. 또한 연령에 따라 전문적 도움 추구 태도의 하위요인인 신뢰감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는데, 40~60대가 20대와 30대보다 전문적인 도움이나 전문가에 대한 신뢰감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성경과 이동혁(2000)의 연구에서 상담 전문가를 신뢰하는 정도를 일반성인, 대학생, 중고등학생 집단 별로 비교해본 결과, 일반 성인집단이 전문가 집단을 가장 신뢰하였으며, 반면에 청소년 집단이 전문가 집단을 가장 낮게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한 결과와 일치하는 점이다. 전문적 도움 추구 의도의 하위요인들 중 20대가 30대와 40~60대보다 진로 문제에 대해서 전문적인 도움을 받고자 하는 의도가 더 높았으며, 체중조절, 과도한 음주 또는 약물 복용, 성 문제와 같은 행동상의 문제에 대해선 40~60대가 20대와 30대보다 전문적인 도움을 받고자 하는 의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직업을 학생, 전문직, 사무직, 전업주부 각각과 판매직, 생산직, 자영업을 묶어서 다섯 집단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심리적 불편감 점수는 학생집단이 전문직 집단과 전업주부 집단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

적 도움 추구 태도에서는 전업주부 집단이 전문직 집단보다 긍정적인 태도를 지닌 것으로 나타났으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업주부 집단이 학생집단과 전문직 집단, 사무직 집단 보다 전문가를 더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개방성에서도 전업주부 집단이 전문직 집단보다 자신의 문제에 개방하는 정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요약하면, 전업주부 집단이 전문적 도움 추구 태도가 가장 긍정적이었으며, 자신의 문제에 대해 개방하려는 정도도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전문가 집단은 전문적 도움 추구 태도가 가장 낮은 점수로 참가자들 중에 가장 긍정적이지 않은 태도를 보였으며, 개방성에서도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심리적 불편감에서도 가장 낮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넷째로, 연구문제 2와 관련하여 심리적 불편감과 전문적 도움 추구 태도 및 의도의 관계에서 체면의 조절효과를 검증한 결과, 본 연구에서는 조절효과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영석(2010)은 조절효과 모형 검증 시 예측변인(독립변인)과 조절변인의 상호작용에 관한 내용이 구체적인 이론을 바탕으로 뒷받침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예측변인인 심리적 불편감과 조절변인인 체면수준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체면의 하위요인 중 체면 민감성과 심리 및 신체 스트레스와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최인재, 최상진, 1999)와 체면 유지에 민감한 사람일수록 사회적 불안을 경험할 가능성이 크다는 연구(진승범, 1995)만이 존재하여, 이론적 근거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조절효과 검증시 종속변인을 측정하는 도구의 신뢰도가 낮을 경우 예측변인과의 상관이 줄어들게 되고, 이는 결국 종속변인에 대한 모델의 설명량을 감소시켜 통계적 검증력을 감소시키게 된다는 주장(Aguinis, 1995)이 있어, 본 연구의 전문적 도움 추구 태도의 측정 도구 신뢰도가 낮은 점 또한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추론된다.

## 2. 연구의 의의 및 제한점과 제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의의를 논하자면 다음과 같다.

전문적 도움 추구 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검토하는데 있어서 본 연구는 한국인 고유의 문화적 특성을 반영하여 시도되었다는 점이다. 기존의 전문적 도움 추구 행동에 관한 연구들은 주로 개인적인 요인들을 밝혀내는 작업들이었고, 몇몇의 문화적 개념들에 대한 시도들이 있었지만 그 수가 다양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개인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문화적 요인까지 함께 고려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비록 체면이 조절효과를 유의하게 나타내진 못하였지만, 이와 같은 시도들이 더욱더 많아진다면 한국인의 상담에 대한 태도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여겨진다.

둘째, 체면과 전문적 도움 추구 태도와 의도 간의 관계를 밝혀, 체면을 중요시 여기는 한국인 내담자들에 대한 개입 방안에 시사점을 준다는 점이다. 체면욕구가 높고 체면을 잃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 클수록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지닐 수 있으며, 특히 신분-인격·능력 합치관을 가지는 한국인들에게 상담과 같은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 것은 자신의 신분과 지위에 타격을 줄 수 있을 것이라 여길 수 있다.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상담과 같은 전문적 도움에 쉽게 접근하기 위해선 사회적인 인식의 변화가 필수적이라 여겨진다. 실제로 최근 미국 심리학회에서는 대중 매체와 캠페인을 통하여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도 상담을 받은 경험이 있으며 이것이 사회적인 성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교육하고 있다(Foxhall, 2000; 유성경, 이동혁, 2000, 재인용). 따라서 한국에서도 사회 인식의 변화를 위해 상담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제공과 적극적인 홍보 및 교육 활동이 필요한 것으로 여겨진다.

덧붙여, 체면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상담과 같은 전문적인 도움에 대해선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지만 실제로는 본 연구의 결과와 같이 체면이

높음에도 상담을 받으려는 의도는 높을 수도 있고, 높지 않을 수도 있어 이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들이 앞으로 더 많이 시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전체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는 전반적으로 낮은 상관( $r=.10\sim.40$ )을 나타내며 이를 토대로 조절효과를 살펴보았다. 때문에 본 연구의 분석 효과를 해석하는데 매우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전문적 도움 추구 태도 척도의 하위요인 중 개방성(Cronbach  $\alpha=.37$ )과 필요성(Cronbach  $\alpha=.50$ )의 신뢰도 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하위요인별로 해석할 때에도 매우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둘째, 체면과 전문적 도움 추구 태도 및 의도와의 관계를 검토한 선행연구가 거의 전무하다고 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논거가 매우 부족하였다는 점이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체면과 전문적 도움 추구 행동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에 대한 여러 탐색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셋째, 본 연구의 참가자들의 심리적 불편감 점수가 매우 낮아 연구 결과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후속연구에서는 임상 집단이나 아임상 집단을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한다면 보다 의미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넷째, 본 연구의 대상자는 20대부터 60대까지의 성인 남녀로 설정하여 보다 다양한 연령대와 직업, 계층을 포함하고자 하였지만, 그 분포가 균일하지 못하였고, 대상자의 거주 지역은 서울과 경기지역으로 한정시켰기 때문에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다소 무리가 있다.

다섯째, 본 연구는 설문지를 통한 자기보고식 측정이기 때문에 응답의 신뢰성에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선 소집단으로 여러 사람들이 함께 작성하는 방법으로 설문지를 실시하였는데, 심리적 불편감이나 체면은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여 설문지에 긍정적으로 답하려는 태도가 반영되었을 수 있

기 때문에 자기 보고식 자료만을 가지고 분석하는 데는 제한이 따를 수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선 자기 보고식의 설문지를 실시하는 연구 방법 외에 실험 방법을 사용하거나, 설문지를 실시할 때 비밀이나 사생활이 보장 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할 것이라 여겨진다.

여섯째, 전문적 도움 추구 태도와 전문적 도움 추구 의도 척도가 한국인에게도 적합하다고 하지만, 태도 척도에서 두 하위요인의 신뢰도가 매우 낮았고, 몇몇 선행 연구들에서 전체 신뢰도만을 제시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한국인에게 더욱더 적합한 전문적 도움 태도 척도가 개발되어야 한다고 여겨진다. 또한 태도 척도에 비해 의도 척도는 앞서 제기하였듯이 매우 간단한 응답만을 요구하므로 의도 척도 또한 응답자가 자신의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여 체크할 수 있도록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전문적 도움 추구 행동에 대한 설명력을 높이고자 종속변인으로 태도와 의도를 함께 설정하였다. 태도가 행동을 예측하는데 꽤 효과적인 변인이라 알려져 있고(Fisher & Turner, 1970; Kelly & Achter, 1995; Vogel & Wester, 2003), 의도 또한 많은 경험적 연구들을 통해 어떤 구체적인 행동을 가장 직접적으로 잘 예측하는 변인인 것으로 나타났다(신연희, 안현의, 2005), 본 연구에서는 태도와 의도의 관계를 심층적으로 살펴보지 못하였고, 더욱이 행동에 대한 태도와 행동에 대한 의도는 실제 행동과는 서로 다를 수 있어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제한점을 극복하기 위해 후속 연구에서는 실제 상담을 요청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보다 효과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김광일 (1997). 한국인의 질병행동과 정신건강. **정신건강연구**, 16, 50-60.
- 김광일, 김재환, 원호택(1984). **간이정신진단검사실시요강**. 서울: 중앙적성출판사.
- 김인규 (2004). 대학생의 상담준비도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6(2), 243-259.
- 김재은 (1987). **한국인의 의식과 행동양식**.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김주미, 유성경 (2002). 전문적 도움 추구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문화적 요인.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4(4), 991-1002.
- 김주엽 (2003). 체면에 대한 한 연구: 실증 연구를 위한 준비. **인적자원개발연구**, 5(2), 63-81.
- 김창대 (1994). 한국인의 문제해결과정: 문화적 요소의 영향. **청소년상담연구**, 2, 96-113.
- 나은영 (2004). 의식개혁에 장애가 되는 요인들. **한국심리학회 '94 추계 학술대회 발표 논문집**, 137-156.
- 박경애, 조현주 (2007). 한국 대학생의 상담 및 심리치료에 대한 생각. **청소년상담연구**, 15(1), 3-15.
- 박기순 (1994). 유교에서 본 인간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일 고찰: 모형정립적 접근. **한국언론학보**, 31, 123-142.
- 박지선 (1994). 인지 및 기대 요인이 도움제공원의 선호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신연희, 안현의 (2005). 전문적 도움 추구 행동에서 접근요인과 회피요인의 상대적 중요성 고찰.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7(1), 177-195.
- 안근석 (2000). 체면과 문화적 자기지향이 자기노출에 미치는 영향 -상담에서

- 의 함의-. **충남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 (11), 113-136.
- 안근석, 양병창 (2000). 대학생의 주관적으로 지각된 스트레스와 체면, 문화적 자기-개념과의 관계. **학생생활연구**, 27, 51-83.
- 오세철 (1982). **한국인의 사회심리**. 서울: 박영사.
- 유성경 (2005). 한국 대학생의 상담, 심리치료, 정신치료에 대한 태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7(3), 617-632.
- 유성경, 유정이 (2000). 집단주의-개인주의 성향과 상담에 대한 태도와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2(1), 19-32.
- 유성경, 이동혁 (2000). 한국인의 상담에 대한 태도에 관한 분석적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2(2), 55-68.
- 유영란, 이지연 (2006). 성인 애착과 전문적 도움 추구 의도: 심리적 불편감, 지각된 사회적 지지, 자기은폐의 매개효과검증.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8(2), 441-460.
- 윤탈림 (1986). **한국인의 성격**. 서울: 동방도서.
- 윤향숙, 김순자, 장성화, (2010). 한국의 문화적 가치와 상담에 대한 국내 연구 동향분석. **한국상담심리치료학회지**, 1(1), 1-17.
- 이규태 (1977). **한국인의 재발견**. 서울: 문리사.
- 이규태 (1983). **한국인의 의식구조**. 서울: 신원문화사.
- 이미경, 김아름, 최성인, 남숙경, 이상민 (2010). 상담에 대한 양가태도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상담학연구**, 11(2), 465-483.
- 이민지, 손은정 (2007). 낙인과 전문적 도움추구 의도 간의 관계: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의 매개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9(4), 949-966.
- 이상민, 남숙경, 이미경 (2009). 정신건강서비스의 경제적 가치: 대학상담활동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8(2), 363-384.
- 이선혜 (2002). 대학생의 정신건강 원조체계 활용 행태.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13(6), 36-58.

- 이은희 (2004). 대학생들이 경험하는 생활스트레스와 우울: 공변량 구조모형을 통한 대처방식의 조절효과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9(1), 25-52.
- 임태섭 (1995). **정, 체면, 연줄 그리고 한국인의 인간관계**. 서울: 한나래.
- 장성숙 (2004). 한국문화에서 상담자의 초점: 개인중심 또는 역할중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8(3), 15-27.
- 장영임 (1999). **문제의 심각도, 사회적 지지 및 상담에 대한 신뢰가 상담 요청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 카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장진이 (2001). **자기은폐와 정서표현 성향, 지각된 사회적 지지 그리고 도움 추구 태도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명숙 (2005). 연령과 삶에 대한 만족도. **한국심리학회: 발달**, 18(4), 87-108.
- 조공호 (2003). **한국인 이해의 개념틀**. 서울: 나남출판.
- 진승범 (1995). **체면과 사회적 불안과의 관계**.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봉영 (1987). **한국문화의 성격**. 서울: 사계절.
- 최상진 (2000). **한국인의 심리**. 서울: 중앙대 출판부.
- 최상진, 김기범 (1998). 체면의 심리적 구조. **한국심리학회 '98 연차대회 학술 발표 논문집**. 559-577.
- 최상진, 김기범 (2000). 체면의 심리구조. **한국심리학회: 사회 및 성격**, 14(1), 185-202.
- 최상진, 양병창 (1999). 체면의 구조와 임상적 의미 분석. **'99 한국 심리학회연차학술대회 학술발표 초록집**. 54-57.
- 최상진, 유승엽 (1992). 한국인의 체면에 대한 사회심리학적 한 분석. **사회심리학회지: 사회**, 6(2), 135-157.
- 최인재, 최상진 (1999). 정, 체면이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 건강**, 4(1), 41-56.
- 최재석 (1976). **한국인의 사회적 성격**. 2판. 서울: 개문사.

- 최재석 (1989). **한국인의 사회적 성격**. 서울: 개문사.
- 하정희 (2010).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전문적 도움추구태도와의 관계 -자아존중감의 조절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2(2), 265-280.
- 한글학회 (1994). **우리말 큰사전**. 서울: 어문각.
- 현미숙 (2003). **아동 부모교육·상담을 위한 부모역할 지능 척도의 개발 타당화**. 박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 Aguinis, H. (1995). Statistical power problems with moderated multiple regression in management research. *Journal of Management Research*, 21, 1141-1158.
- Ajzen, I., & Fishbein, M. (1973). Attitudinal and normative variables as predictors of specific behavior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27, 41-57.
- Akutsu, P., Snowden, L. R., & Organista, K. (1996). Referral Patterns in ethnic-specific and mainstream programs for ethnic minorities and white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3, 56-64.
- Andrew, G., Issakidism C., & Carter, G. (2001). Shortfall in mental health service utilization.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79(5), 417-425.
- Berdie, R. F., & Stein, J. (1996). A camparison of new university students who do and who do not seek counseling.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13, 310-317.
- Bloodworth, D. (1980). *Chrysanthemum and the Sword: Patterns of Japanese Culture*, New York: New American Library.
- Brinson, L. A. & Kottler, J. A. (1995). Minorities 'underutilization of counseling centers' mental health services: A case for outreach and consultation. *Journal of Mental Health Counseling*, 17, 371-385.

- Brown, P., & Levinson, S. (1978). Universal in Language usage: Politeness phenomena, In E. Goody (Ed), *Questions and Politeness: Strategies in social interac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56-289.
- Brown, P. & Levinson, S. (1987). *Politeness: Some Universals in Language Use*, 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ash, T. F., Begley, P. J., McCown, D. A., & Weise, B. C. (1975). When counselors are heard but not seen: Initial impact of physical attractivenes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2(4), 273-279.
- Cepeda-Benito, A., & Short, P. (1998). Self-concealment, avoidance of psychological services, and perceived likelihood of seeking professional help.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5, 58-64.
- Cramer, K. M. (1999). Psychological antecedents to help-seeking behavior: A reanalysis using path modeling structure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6, 381-387.
- Fisher, E. H., & Turner, K. L. (1970). Development and research utility of an attitude scale.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35, 79-90.
- Foxhall, K (2000, July/August). APA is key to anti-stigma campaign. *APA Monitor*, 48-49.
- Goffman, E. (1955). On facework, *Psychiatry*, 18, 213-231.
- Goffman, E. (1956). Embarrassment and social organization,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62, 264-271.
- Goffman, E. (1959). *The presentation of self in everyday life*. New York: The Overlook Press.
- Goffman, E. (1967). *Interaction ritual: Essays of face to face behavior*. Garden City, NY: Doubleday Anchor Books.

- Goodman, S. H., Sewell, D. R., & Jampol, R. C. (1984). On going to the counselor: Contributions of life stress and social supports to the decision to seek psychological counseling.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1*, 306-3.
- Gross, A. E., & McMullen, P. A. (1982). *Models of help-seeking process*. In B. M. Depaulo, A. Nadler, & J. D. Fischer (Eds), *New directions in help: Help-Seeking* (Vol. 2, pp. 45-70). New York: Academic Press.
- Hewitt, P. L., & Flett, G. L., Sherry, S. B., Habke, M., Parkin, M., L., Lam, R. W., Lam, R. W., McMurtry, B., Ediger, E., Fairlie, P., & Stein, M. B. (2003). The interpersonal expression of perfection: Perfectionistic self-presentation and psychological distr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4*(6), 1303-1325.
- Ho, D. Y. F. (1976). On the concept of face,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81*, 867-884.
- Hu, H. C. (1944). The Chinese concept of face, *American Anthropologist, 46*, 45-54.
- Kawanishi, Y. (1992). Somatization of Asians: An artifact of western medication? *Transcultural Psychiatric Research Review, 29*, 5-36.
- Kim, J. Y., & Nam, S. H. (1998). The concept and dynamics of face: Implications for organizational behavior in Asia, *Organization Science, 9*, 522-534.
- Kelly, A. E., & Achter, J. A. (1995). Self-concealment and attitudes toward counseling in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2*, 40-46.
- Larson, D. G., & Chastain, R. L. (1990). Self-concealment: Conceptualization, measurement, and health implications.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9*, 439-455.

- Lebra, T. S. (1976). *Japanese patterns of behavior*.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 Lin, K. (1981). Traditional Chinese medical beliefs and their relevance for mental illness and psychiatry. In A. Kleinman & Lin (Eds), *Normal and Abnormal Behaviors in Chinese Culture, 95-111*. Dordrecht: The Netherlands: D. Reidel.
- Lopez, F. G., Melendez, M. C., Sauer, E. M, Berger, E., & Wyssmann, J. (1998). Internal working models, self-reported problems, and help-seeking attitudes amo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5*, 79-83.
- Markus, H. R. & Kitayama, S. (1991). Culture and the self: Implications for cognition, emotion, and motivation. *Psychological Review, 98*, 224-253.
- Minge, M. R. (1965). *Counseling readines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Washington State University.
- Norcross, J. C., & Prochaska, J. O. (1986). The psychological distress and self-change of psychologists, counselors, and laypersons. *Psychotherapy, 23*, 102-114.
- Rickwood, D. J., & Braithwaite, V. A. (1994). Social psychological factors affecting help seeking for emotional problems. *Social science and Medicine, 39*, 563-572.
- Robins, J. M., & Grennley, J. R. (1983). Thinking about what's wrong: Attributions of severity, cause, and during in the problem definition stage of psychiatric help-seeking. *Reserch in Community & Mental Health, 3*, 209-232.

- Sue, S., & Morishima, J. (1982). *The mental health of Asian Americans*, San Francisco, CA: Jossey-Bass.
- Tata, S. P., & Leong, F. T. L. (1994). Individualism-collectivism, social network orientation, and acculturation as predictors of attitudes toward seeking professional psychological help among Chinese American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1*, 280-287.
- Vogel, D., & Wester, S. R. (2003). To seek help or not to seek help: The risks of self-disclosur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0*, 351-361.
- Wampold, B. E. (2000). Outcomes in individual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Empirical evidence addressing two fundamental questions. In Steven D. Brown & Robert W. Lent (Eds). *Handbook of Counseling Psychology* (pp. 711-739). New York: John & Wiley & Sons, Inc.
- Ying, Y., & Miller, L. S. (1992). Help-seeking and attitude of Chinese Americans regarding psychological problems.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20*, 549-556.
- Yoo, S. K. (1997). *Individualism-collectivism, attribution styles of mental illness, depression symptomatology, and attitudes toward seeking professional help: A comparative study between Koreans and American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Minnesota.

## ABSTRACT

### **The Relation between Psychological Distress and Professional Help Seeking Attitude and Intention: The Moderating Effect of The Korean Social Face (Chemyon)**

Maeng, Jin-Hee

Department of Psychology

The Graduate School of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moderation effects of the Korean social face(Chemyon) on the relation between psychological distress and professional help seeking attitude and intention. The participants were 307 adults at 20s~60s in Seoul and Gyeonggi area. Each participants received a package of the instruments: The Symptom Checklist-90-Revisions, The Korean Social Face(Chemyon) Scale, Attitude toward Seeking Professional Psychological Help Scale, Intentions to Seek Counseling Inventory.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psychological distress hadn't significantly correlation with attitude toward seeking professional psychological help. However, psychological distress had significantly a positive correlation with intentions to seek counseling. Second, attitude toward seeking professional psychological help had a

significantly correlation with intentions to seek counseling. Third, chemyon had a negative correlation with attitude toward seeking professional psychological help. However chemyon had a positive correlation with intentions to seek counseling. Fourth, according to sex, age, job, there were meaningful differences in psychological distress, attitudes toward seeking professional psychological help and intentions to seek counseling except chemyon. Fifth, chemyon not moderated the relation between psychological distress and attitude toward seeking professional psychological help. Sixth, chemyon not moderated the relation between psychological distress and intentions to seek counseling. Finally, based on the finding results, the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is study were discussed.

Key Words : psychological distress, the Korean social face (Chemyon), professional help seeking attitude, professional help seeking intention

## 부 록

부록 1. 심리적 불편감 척도

부록 2. 체면 척도

부록 3. 전문적 도움 추구 태도 척도

부록 4. 전문적 도움 추구 의도 척도

## 부록 1. 심리적 불편감 척도

1. 다음은 우리가 때때로 나타내는 불편감들을 항목으로 모아놓은 것입니다. 문항을 잘 읽은 후 당신이 지난 7일 동안 (오늘을 포함해서) 이런 문제 때문에 얼마나 불편해했는지를 평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후, 당신의 상태를 가장 잘 나타내는 오른쪽 숫자에 표시(● 또는 ✓)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 항		전혀 없다	약간 있다	보통 정도	꽤 심하다	아주 심하다
1	신경이 예민하고, 마음의 안정이 안 된다.	①	②	③	④	⑤
2	성욕이 감퇴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3	다른 사람들이 못 마땅하게 보인다.	①	②	③	④	⑤
4	기운이 없고 침체된 기분이다	①	②	③	④	⑤
5	손이나 마음이 떨린다.	①	②	③	④	⑤
6	이성을 대하면 어색하거나 부끄럽다.	①	②	③	④	⑤
7	죽고 싶은 생각이 든다.	①	②	③	④	⑤
8	별 이유 없이 깜짝 놀란다.	①	②	③	④	⑤
9	쉽게 기분이 상한다.	①	②	③	④	⑤
10	울기를 잘한다.	①	②	③	④	⑤
11	두려운 느낌이 든다.	①	②	③	④	⑤
12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13	어떤 함정에 빠져 헤어 나올 수 없는 기분이 든다.	①	②	③	④	⑤
14	다른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거나 나에게 불친절하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15	심장(가슴)이 마구 뛰다.	①	②	③	④	⑤
16	자책을 잘한다.	①	②	③	④	⑤
17	내가 남보다 못한 것 같다. (열등감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18	긴장이 된다.	①	②	③	④	⑤
19	외롭다.	①	②	③	④	⑤
20	남들이 나를 쳐다보거나 나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는 거부해진다.	①	②	③	④	⑤
21	공포에 휩싸이는 때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22	기분이 울적하다.	①	②	③	④	⑤
23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을 때는 나의 언행에 신경을 쓰게 된다.	①	②	③	④	⑤
24	안전부절못해서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다.	①	②	③	④	⑤
25	매사에 걱정이 많다.	①	②	③	④	⑤
26	여러 사람이 있는 곳에서 먹고 마시기가 거부하다.	①	②	③	④	⑤
27	낮익은 것들도 생소하거나 비현실적인 것처럼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28	매사에 관심과 흥미가 없다.	①	②	③	④	⑤
29	무슨 일이든 조급해서 안전부절못한다.	①	②	③	④	⑤
30	장래가 희망이 없는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31	매사가 힘들다.	①	②	③	④	⑤
32	허무한 느낌이 든다.	①	②	③	④	⑤

## 부록 2. 체면 척도

2. 다음의 문항을 잘 읽고, 1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부터 7점(매우 그렇다)까지 여러분의 생각이나 느낌을 가장 잘 나타낸다고 생각되는 숫자에 표시(● 또는 ✓)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	나는 품위가 떨어질까봐 걱정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누군가에게 부탁할 때 거절당할까봐 걱정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다른 사람이 나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실망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나는 사람에게 인격이 중요하다고 믿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나는 남들이 나보다 잘한다는 말을 들으면 기분이 상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6	나는 사람에게 교양이 있어야 한다고 믿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7	나는 체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행동하는 경우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8	나는 사람에게 명예가 중요하다고 믿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9	나는 비교대상이 되는 동료나 후배를 의식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0	나는 남들보다 높은 지위에 있었으면 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1	나는 남들보다 우월하다고 믿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2	사람들은 어느 정도의 격식을 차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3	나는 체면이 떨어지는 일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4	하고는 싶지만 체면 때문에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도 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5	나는 자존심이 상하는 것을 참을 수 없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6	나보다 지위가 낮은 사람의 질문에 대해 답변을 하지 못하면 창피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7	남들이 다하는 일을 내가 하지 못하는 경우에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8	남이 나를 무시하는 것을 참을 수 없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9	나의 약점이 남에게 들어가는 것을 참기 어려워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0	사람은 지위에 맞는 행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1	일을 할 때 내 능력이 부족하다고 느끼더라도 남들 앞에서 인정하고 싶지 않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2	나는 특히 나보다 지위가 낮은 사람에게는 나의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3	내가 다른 사람 눈에 교양 없는 사람으로 보일까봐 걱정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4	나는 타인의 시선을 많이 의식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5	어떤 상황에서 나에게 어울리지 않는 역할을 한다면 수치스러울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6	타인의 행동이 나의 행동에 기준이 될 때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7	나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할 때 실수를 할까봐 조심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8	나는 전통적인 예절이나 관습을 중시하고 따르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9	내가 사회적 지위나 신분이 낮은 사람으로 보일까봐 걱정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0	나를 잘 아는 사람이 나의 지위나 신분에 맞는 대우를 해주지 않으면 화가 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1	하고는 싶지만 체면 때문에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는 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2	나는 주위 사람들이 하는 방식에 따라 행동하기도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 부록 3. 전문적 도움 추구 태도 척도

3. 다음의 문항을 잘 읽고, 1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부터 4점(매우 그렇다)까지 여러분의 생각이나 느낌을 가장 잘 나타낸다고 생각되는 숫자에 표시(● 또는 ✓)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정신적인 문제를 가진 사람들을 위한 기관(예: 상담실)들이 있지만 난 그 기관들을 그렇게 신뢰하는 편은 아니다.	①	②	③	④
2	만약 친한 친구가 정신적인 문제로 조언을 구한다면 상담자를 만나보도록 권하겠다.	①	②	③	④
3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생각 때문에 상담자에게 가는 것이 불안하다.	①	②	③	④
4	강인한 성품을 가진 사람은 스스로의 힘으로 정신적인 갈등을 극복할 수 있으므로 상담자에게 갈 필요가 없을 것이다.	①	②	③	④
5	개인적이거나 정서적인 문제로 어찌할 바를 몰라서 전문적인 도움을 받고 싶었던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6	상담에 드는 비용을 고려해 볼 때 나에게 그만큼 가치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①	②	③	④
7	만약 나와 내 가족 중의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면 개인적인 문제일지라도 적절한 사람에게 기꺼이 털어놓을 것이다.	①	②	③	④
8	상담과 같은 힘든 과정을 겪느니 차라리 정신적인 갈등을 안고 살아가겠다.	①	②	③	④
9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정서적인 어려움도 저절로 해결되는 경향이 있다.	①	②	③	④
10	심각한 정서적인 혼란을 겪는 사람은 아마도 좋은 상담실에서 가장 안전하게 느낄 것이다.	①	②	③	④
11	만약 정신적으로 붕괴되고 있다고 생각되면 나는 우선 전문적인 도움을 구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12	상담을 받는 경험은 개인의 일생에 오점이 된다.	①	②	③	④
13	나는 정서적인 문제일지라도 상담자보다는 차라리 친한 친구에게 조언을 구하겠다.	①	②	③	④
14	나는 나의 개인적인 어려움에 대해서 알고 하는 모든 사람(전문가이건 아니건)에 대해 분개한다.	①	②	③	④
15	만약 내가 오랜 기간 동안 불안과 걱정으로 고통 받았다면 상담과 같은 전문적인 도움을 구하겠다.	①	②	③	④
16	자신의 문제를 상담자와 의논하는 것은 정서적인 갈등을 해결하는데 썩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다.	①	②	③	④
17	정신병을 앓았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①	②	③	④
18	내가 나 자신에 대해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이 반드시 좋다고 할 수 없다.	①	②	③	④
19	만약 내가 현재 심각한 정서적인 위기를 겪고 있다면 상담으로 안정을 찾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①	②	③	④
20	나는 언젠가 심리적인 문제로 상담을 받기를 원할지도 모른다.	①	②	③	④
21	자신의 문제는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상담을 받는 것은 최후의 수단일 것이다.	①	②	③	④
22	만약 내가 상담실에서 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다면 그 사실을 숨겨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이다.	①	②	③	④
23	만약 상담실에서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더라도 도움을 구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24	의사나 교사, 성직자와 같이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과는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어렵게 느껴진다.	①	②	③	④

#### 부록 4. 전문적 도움 추구 의도 척도

4. 다음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상담을 받으러 오는 여러 가지 문제의 목록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얼마나 상담을 받으러 올 것인지 1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부터 4점(매우 그렇다)까지 해당되는 숫자에 표시(● 또는 ✓)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체중 조절	①	②	③	④
2	과도한 음주 또는 약물 복용 문제	①	②	③	④
3	대인관계문제	①	②	③	④
4	성 문제	①	②	③	④
5	우울증	①	②	③	④
6	성격상의 문제	①	②	③	④
7	가족 문제	①	②	③	④
8	불안	①	②	③	④
9	이성 문제	①	②	③	④
10	직업 및 진로	①	②	③	④

다음은 귀하의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숫자에 표시(● 또는 ✓)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귀하의 성별은?    ① 남 ② 여
2. 귀하의 연령은?    \_\_\_\_\_세
3. 귀하의 학력은?  
① 초졸 ② 중졸 ③ 고졸 ④ 대졸 ⑤ 석사 ⑥ 박사
4. 귀하의 직업은?  
① 학생 ② 전문직 ③ 사무직 ④ 판매직 ⑤ 생산직 ⑥ 자영업 ⑦ 전업주부  
⑧ 무직 ⑨ 기타\_\_\_\_\_
5. 귀하의 한 달 평균 수입은?  
① 150만원 미만 ② 150만원 이상 ~ 250만원 미만 ③ 350만원 이상 ~ 450만원 미만  
④ 450만원 이상 ~ 550만원 미만 ⑤ 550만원 이상 ⑥ 수입 없음
6. 귀하는 한국외의 다른 문화권에 거주한 적이 있습니까?  
① 있음 ② 없음  
있다면, 거주 지역은?  
① 남아메리카 ② 북아메리카 ③ 오세아니아 ④ 유럽 ⑤ 아프리카  
거주 기간은?    \_\_\_\_\_년    \_\_\_\_\_개월

수고하셨습니다 설문에 참여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